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32913

<박씨전> 연구

A Study on the <Parkssijeon>

2006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 어 교 육 전 공

김 행 지

<박씨전> 연구

지도교수 김 수 중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국어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합니다.

2005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 어 교 육 전 공

김 행 지

- 목 차 -

Ⅰ. 서론 ····· 1
1. 연구 목적 및 방향 ····· 1
2. 연구사 검토 및 문제 제기 ····· 2

Ⅱ. <박씨전> 창작의 배경 ····· 8
1. 병자호란 후 사회적 혼미 ····· 8
2. 여성 의식의 대두 ····· 11
3. 설화의 수용 ····· 17

Ⅲ. <박씨전>의 전개 양상과 구조적 특징 ····· 27
1. 순차적 전개 양상 ····· 27
2. 가정 내외의 갈등 구조 ····· 34

Ⅳ. <박씨전>의 주제 의식과 사상성 ····· 49
1. 민족의 자긍심 회복과 근대 여성 의식 ····· 49
2. 유교적 가치관 ····· 62

Ⅴ. <박씨전>의 문학 교육적 가치와 교육방법 ····· 67
1. 문학 교육적 가치 탐구 ····· 67
2. 문학 교육방법 분석 ····· 70

Ⅵ. 결론 ····· 77

※ 참고문헌 ····· 80

ABSTRACT

A Study on the <Parkssijeon>

Kim haeng-ji
Advisor : Prof. Kim Su-jung, Ph.D.
Majo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e <Parkssijeon> is a fiction that describes achievements of fictional Mrs. Park's life on the background of Byeongjahoran. Mrs. Park, a heroine, overcomes conflicts in her family due to her ugly appearance with her mystical ability and transformation and resisted against shameful surrender in Byeongjahoran through heroic activities.

This study speculates background, developmental aspects and themes of the novel to identify general literary property of the <Parkssijeon> and to abstract its value as literature education based on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First, the <Parkssijeon> was written after Byeongjahoran, after all the actual persons living at that time disappeared. It accused contradiction of patriarchical family system and conceptual belittlement of female ability. It is thought that it was written in middle of the 18th century in that it implies an intentional desire to be awakened on women and to promote re-acknowledgement of women. In consideration that the author has an

ability to create a novel, the novel does not reflect living and mind of the common people at all, and a woman has progressive thought with strong self-consciousness, the author is believed to be a woman from noble class. It is confirmed that <Parkssijeon> includes various narratives.

Second, in respect to developmental process, the <Parkssijeon> is divided into family story and national salvation. The family story, the first half, deals with conflicts in family because of Mrs. Park's ugly appearance. Mrs. Park solved conflicts through mystical ability and transformation. The national salvation story, the last half, deals with conflicts between Mrs. Park and powerful families in Byeongjahoran period. Mrs. Park defeated Kihongdae and Yonggoldae brothers, which is a partial indemnity against miserable defeat in Byeongjahoran.

Third, in respect to themes, the <Parkssijeon> represents recovery of national confidence and mind of modern women. In historical aspect, it reconsiders historic heroes in the <Parkssijeon> and actual situation of the battle. It discloses powerless politics and social status at that time while it provides spiritual victory through Mrs. Park's ability following national desire to purify shame of the defeat. That a woman participates in political affairs at the time when women were considered as inanimate objects and overcame national crisis provides a great meaning to roles of women. It highlights the sense of modern women which is differentiated from that of traditional women and self-consciousness.

Finally,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Parkssijeon> has literature educational value, in which national desires to overcome defeat at Byeongjahoran and growth of modern women's mind are shown through victorious actions of a heroine. It also confirmed that in order to prepare

a ground on which fictional character and characteristics of the <Parkssijeon> can be learned perfectly through speculation on literature textbooks with literature educational value, we have to provide exact information on this work and make the balanced reference of the work.

Based on the speculation above, the <Parkssijeon> is designed to overcome a national disaster named 'Byeongjahoran' and cure hurts from shameful surrender. In particular, Mrs. Park's heroic activities have a great meaning in that it is intended to show intentional awakening and express female emotion to escape from the Confucian conventions, not only desiring to overcome a national disaster named 'Byeongjahoran' and shameful surrender to the enemy.

Ⅰ. 서 론

1. 연구 목적 및 방향

병자호란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 또 하나의 커다란 치욕을 안겨준 사건이었다. 임진왜란에 이어 조선은 다시 한 번 사회적으로 큰 타격과 혼란에 휩싸이게 된다. 야인이라고 항상 무시했던 만주족에게 패배한 만큼 민중들의 분노와 저항은 매우 컸고, 정신적인 충격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이러한 반사작용으로, 무너진 민족적 자존심과 긍지를 회복하려는 의지의 발현으로 나온 작품이 <박씨전>이다.

<박씨전>은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가공의 인물 박씨의 행적을 그린 작품이다. 이 작품은 주인공인 박씨가 자신의 추모 때문에 빚어진 가정 내에서의 갈등을 신이한 능력과 변신으로 극복하고, 병자호란 시에 영웅적인 활약을 함으로써 國恥的 항복에 대응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특히 여장군의 면모를 지닌 박씨에 의해 당시 무너져 가는 국가의 체제를 바로 세우려 한 점이 강조되어 있는데, 이는 이전까지 고전소설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일대 변혁으로 바야흐로 전쟁을 겪고 난 후 무능한 왕권 및 지배층에 대한 불신과 남성들의 무능력을 체험한 사회 여건 속에서 여성 의식의 새로운 각성이 호국에 대한 복수심, 적개심과 복합되어 나타난 것이다. 작품에 반영된 배청사상과 여성 의식의 표출은 전쟁 후 서서히 확산되기 시작한 근대의식의 발로라는 점에서 당시의 시대적 사조와 크게 접맥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작품의 현전하는 이본은 약 40여종인데, 坊刻本은 발견된 것이 없고 筆寫本만 남아있다. 결국 이렇게 이본이 많다는 사실로도 이 <박씨전>이 얼마나 많은 독자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작품이었나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기존 연구 중에는 <박씨전>의 전반부를 醜女朴氏脫甲幸運譚이라 하고, 후반부를 丙子胡亂救國英雄譚으로 구분되는 이중적 구조로 보고, 서로 다른 두 작품이 결합되어 형성된 것이라고 보는 견해[1)]가 있다.

본고에서는 박씨의 도술적 행위와 피화당을 구성상 필수적인 연결고리로 보고 이를 통해 <박씨전>을 하나의 서사구조 아래 이루어진 작품으로 보았다.

이런 관점에서 각 장의 연구방향을 살펴보면,

Ⅱ장에서는 <박씨전>의 형성 배경을 시대적 배경과 수용된 설화를 통해 검토해 보고, Ⅲ장에서 Ⅳ장까지는 <박씨전>의 작품론으로, Ⅲ장에서는 <박씨전>의 전개 양상과 박씨가 가정 내외에서 겪는 갈등 구조를, Ⅳ장에서는 <박씨전>의 주제 의식과 함께 작품에 투영된 유교적 가치관의 의미를 추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 위 연구내용을 토대로 <박씨전>의 문학 교육적 가치와 교육방법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상에서와 같이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 업적을 토대로 <박씨전>을 역사의식 발현과 여성 우위적 측면에서 파악하고 이해하며, <박씨전>의 소설성을 종합적으로 규명하여 문학 교육적 방법에 이르는 비교적 폭넓은 목적과 방향을 제기하였다.

본고에서는 『한국고전문집』15권 손낙범본 <명월부인전>, 고대본 <박씨전>[2] 의 이본을 대본으로 하고자 한다.

2. 연구사 검토 및 문제 제기

그 동안 <박씨전>의 연구는 크게 네 가지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유형 연구를 비롯하여 이본에 관한 연구, 작품 형성에 관한 연구, 주제 및 사상에 관한 연

---

1) 성현경, 「女傑小說과 薛仁貴傳」, 『국어국문학』, (국어국문학회 62 · 63合併號, 1973), p.181.
사재동, 「朴氏傳의 形成過程」, 『장암지헌영선생고희기념논총』, 1980, pp.401-403.
경일남, 「朴氏傳의 佛敎的 性格」, 『어문연구』14집, (충남대 어문연구회, 1985), pp.285-288.
이윤석, 「朴氏傳 考」, 『여성문제연구』12집, (효성여대 여성문제연구소, 1983), pp.217-219.

2) 김기현 역주, 『한국고전문학전집』卷15,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95).
대본을 인용할 경우 이하 책 면수 표기로 한다.

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먼저, <박씨전>에 대한 본격적 연구는 그 초기 준비과정으로 볼 수 있는 유형 연구에 치중되어 왔다. 유형분류로서 군담소설, 역사소설, 역사군담소설, 여성영웅 소설류 등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특히 처음으로 <박씨전>의 유형을 군담소설로 분류한 金台俊은 그의『朝鮮小說史』에서 "男女가 一致하야 外敵을 막고저 함은 蘇大成 · 王將軍 · 張國鎭傳等 當時에 流行된 將帥의 傳記가 共通한 點이니 이는 外敵에 대한 敵愾心을 수발하여 朝鮮女性 固有의 義烈한 精神을 發揮시키고자 하는 人工美로도 볼 수 있으나"[3] 라고 지적하며 <박씨전>의 출현을 임란 · 병란 후 배태된 충의과 의협의 고취로 보았다.

또한 주왕산, 신기형[4]도 김태준의 견해와 같다. 이와는 각도를 달리하여 박성의, 정주동, 김기동, 소재영, 김장동[5] 등은 <박씨전>이 역사상의 실재 인물이나 사건을 소재로 한 점을 지적하여 역사소설로 분류하였고 장덕순[6]의 경우 역사적 전쟁을 취재한 점을 들어 전쟁소설로 보았다.

한편 성현경은 이와는 달리 새로운 하위유형 연구를 제기하여 <박씨전>과 같이 여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군담소설을 <여걸소설>이라고 칭하였는데[7] 이는 바로 종래의 평면적인 분류로부터 주인공의 성격 및 활약을 위주로 분류한 것으로 여성 의식의 각성이라는 근대적 의식이 작용한 점에 큰 의의를 두고 있다.

둘째, <박씨전>의 이본에 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수집 · 정리하

---

3) 김태준,『朝鮮小說史』, (학예사, 1939), p.102.

4) 주왕산,『朝鮮古代小說史』, (정음사, 1950).
신기형,『韓國小說發達史』, (창문사, 1960).

5) 박성의,『韓國古代小說論과 史』, (집문당, 1986).
정주동,『고대소설론』, (형설출판사, 1984).
김기동,『이조시대소설론』, (선명문화사, 1975).
소재영,『임병양란과 문예의식』, (한국연구원, 1980).
김장동,『조선조역사소설연구』, (이우출판사, 1995).

6) 장덕순,「병자호란을 전후한 전쟁소설」,『인문과학』3집, (연세대 인문과학연구소, 1959).

7) 성현경, 앞의 책.

여 소개했는데 김기현, 신동일, 사재동, 김대숙 등이 대표적이다. 김기현은 <박씨전>에 대하여 최초로 본격적인 연구를 시도하였는데 필사본, 활자본, 주역본 등 이본 14종을 소개하였다.[8] 그 다음 신동일은 필사본 4종과 활자본 2종을 추가로 소개하였다.[9] 그리고 사재동이 1980년에 <박씨전>의 형성과정을 발표하면서 많은 수의 필사본을 학계에 소개하였다.[10] 이 필사본들은 개인 소장가들의 이본들을 주축으로 한 것인데, 사재동은 이들 약 25종에 달하는 異本들을 시대배경을 기준으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선조 · 인조 대의 전후반이 조화되어 있는 第一 類型, 세종 · 세조 대의 전반부와 인조 대의 후반부가 합일되어 있는 第二 類型, 그리고 세종 · 세조 대의 전반부만으로 독립되어 있는 第三 類型인데, 이 중에서 第三 類型에 주목하여 세조 대에 박씨라는 추녀가 脫甲하여 행복한 삶을 산다는 이야기가 <박씨전>의 원형이라고 보고, 그것이 불경의 醜女金剛 故事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하였다. 이후 김대숙은 또 다른 10여종의 이본을 소개하면서 모두 23종의 이본을 대상으로, 이시백이 평범한 출생을 하는 계열과 祈子精誠의 결과 晩得子로 태어나는 계열로 나누고[11], 이것이 <박씨전>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보았다. 이외에도 이문규는 시애틀 소장의 필사본 <박부인전>을 소개하면서, <박씨전>이 수많은 이본을 지니고 있을 만큼 인기리에 수용될 수 있었던 미학적 근거를 밝히고자 시도하였다.[12]

다음으로 <박씨전>의 형성 문제에 대해서는, 이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근원설화에 관심을 기울여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이 된 것은 김태준의 『朝鮮小說史』에서다. 김태준은 金文谷의 夫人 羅氏설화, 黃岡雜錄 淸風記에 있는 朴進士夫人의 史蹟, 을지문덕의 살수대전 때의 鹿足將軍설화, 그리

8) 김기현, 「박씨전 연구」, (고려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64).

9) 신동일, 「李朝戰爭小說 朴氏傳硏究」, 『육사논문집』6집, 1968.

10) 사재동, 앞의 책.

11) 김대숙, 「愚夫賢女설화와 박씨전」, 『한국설화문학연구』, (집문당, 1944).

12) 이문규, 「<朴氏傳>의 美學的 硏究」, 『우산이인섭교수회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1995).

고 이괄의 난때 江界女將軍 夫娘설화 등이 이 작품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았다.[13] 그리고 김기현은 醜女설화, 女將軍설화, 義妓설화 등을 근원설화로 각각 제시하면서 金汚夫人설화를 추가하여 이것이 <박씨전>의 모형에 가장 가깝다고 하였다.[14] 신동일은 <박씨전>을 祈願得子, 婚姻, 朝服, 養馬得金, 壯元及第, 脫甲, 胡亂 및 王世子 歸還 등의 설화로 구성되었다고 하고 삼국사기 열전에 나오는 온달 이야기와 薛氏女 이야기 등을 거론하였다[15]. 한편, 이경우는 <박씨전>을 여걸설화와 접맥될 수 있다고 보고 기왕에 소개된 자료 이외에『구비문학대계』등에 채록된 민담을 중심으로 조사하여 異人 며느리, 李浣의 妾, 郭再祐의 부인 등의 민담을 들었다.[16] 여세주는『구비문학대계』에 채록된 자료 중에서 남이 장군, 사명당과 세여자를 더 들고 한문단편인 吉女, 劍女 이야기도 같이 언급하였다.[17] 그리고 김대숙은 <박씨전>의 소재 원천을 복진 며느리 유형으로 대표되는 愚夫賢女설화라고 보았다.[18]

한편 <박씨전>의 형성문제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논의해 온 것이 이 작품을 前半과 後半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즉 많은 연구가들은 이 작품의 전후반이 상당히 이질적인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각각 다른 두 이야기가 결합되어 형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성현경, 사재동, 이윤석 등이 그러한 주장을 폈다.[19] 이들은 대체로 전반부를 醜女朴氏脫甲幸運譚이라 하고, 후반부를 丙子胡亂救國英雄譚이라고 소제목을 붙여서 구별하고 있다. 특히 사재동은 이 작품의 전후반이 완전히 다른 별개의 이야기

---

13) 김태준, 앞의 책, pp.101-102.

14) 김기현, 앞의 책, pp.115-123.

15) 신동일, 앞의 책, pp.18-33.

16) 이경우,「說話的 側面에서 본 朴氏傳」,『논문집』13, (청주사범대, 1984).

17) 여세주,「朴氏傳의 構造와 後半部의 淵源 考察」,『영남어문학』13, (영남어문학회, 1986).

18) 김대숙, 앞의 책, pp.163-175.

19) 성현경, 앞의 책, 사재동, 앞의 책, 이윤석, 앞의 책.

라고 보고, 原 <박씨전>은 전반부만이고 이것이 불경에 나오는 醜女金剛 고사에서 연원한 것이라고 하였다. 또 이윤석은 <박씨전>에 들어 있는 임경업에 관한 이야기가 <임경업전>에 들어 있는 내용 그대로이며, <박씨전>의 후반부가 <임경업전>의 전반부와 같다고 하였다.

다음으로는 <박씨전>의 주제 및 사상에 대한 연구들인데, 일찍이 김태준은 앞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박씨전>의 출현을 임진 · 병자 양란 후 배태된 충의와 의협의 고취로 보았다.

김기현은 역사의식을 고취시키려는 의도를 지닌 역사소설로 보면서, 특히 작품의 내용과 역사적 사실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독자들, 그 중에서도 여성독자의 애국심을 고취하고 國恥的 항복에 대한 정신적 복수를 주제로 하였다고 설명했다.[20] 이외에도 김기동, 김장동, 장덕순, 정주동 등도 김태준이 언급한 것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대체로 동조하고 있다.[21] 즉 崇明排淸 사상과 여성들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호적에 대한 적개심과 복수심을 주제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김미란은 박씨의 변신에 주목하여 그 의미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즉 <박씨전>에서 박씨의 변신이 작품의 전후반을 연결해 주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고, 이것은 박씨라는 한 소녀가 성장하여 성숙한 여인이 되는 성년식의 의미를 지니며 가정이라는 소사회와 나아가서는 대외적인 사회로 들어가는 入社式의 의미를 지녔다고 했다. 그리고 여기에는 상위의 여성 대 하위의 남성이라는 관념이 깔려 있다고 보았다.[22] 이인숙은 巫敎思想과의 관련성을 박처사의 山神的 성격과 박씨가 피화당에 심은 나무가 神木의 역할을 한다고 보면서, 박씨의 변신을 무녀로서의 成巫式에 따르는 入社儀禮로 보았다.[23] 그리고 백명자는 이것을 상실했던 본래의 자아를 되

---

20) 김기현, 앞의 책, p.138.

21) 김기동, 『韓國古典小說硏究』, (교학연구사, 1985).
김장동, 『朝鮮朝小說의 作品論考』, (형설출판사, 1986).
장덕순, 『國文學通論』, (신구문화사, 1985).
정주동, 『古代小說論』, (형설출판사, 1986).

22) 김미란, 「朴氏傳 硏究」,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6).

찾는 再生的 循環 원리로 보았다.[24]

한편 여세주는 <박씨전>에 등장하는 인물의 상호관계의 분석을 통해 작품에 드러난 의미를 시백과 박씨의 불공평한 부부 관계라고 하면서, 이것은 조선 시대의 가족 구조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곧 <박씨전>의 주제는 조선 사회에 있어서의 불공평한 부부 관계와 아내에 대한 남편의 부당한 대우를 비판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면서 남녀 불평등을 가정적인 문제로만 의식했지,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시키지 못한 것을 한계로 지적했다.[25]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박씨전>에 대한 학계의 논문은 상당한 분량이다. 그리고 작품에 관한 연구 또한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되어 왔기 때문에 이 작품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도 어느 정도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박씨전>이 이질적 이야기의 결합이라는 구성상의 문제를 지적한 연구들은 주인공인 박씨의 행위를 중심으로 사건이 진행된다는 점과 소설은 그 자체가 유기적 구조를 이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고되어야 한다.

---

23) 이인숙, 「朴氏傳과 巫敎思想」, 『국제어문』2, (국제어문학연구회, 1981).

24) 백명자, 「박씨전 연구」, (경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25) 여세주, 앞의 책, pp.80-85.

Ⅱ. <박씨전> 창작의 배경

1. 병자호란 후 사회적 혼미

문학작품은 그 당시의 시대상황을 반영하는 시대적 소산물이다. 르네 웰렉은 "문학은 문화의 일부로서의 사회적 배경, 즉 환경에서만 생겨난다."[26]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살펴보는 것은 작품을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과업이 아닐 수 없다. <박씨전>은 실제인물 이시백의 등장과 작품의 후반부에 구성된 병자호란의 전쟁담으로 볼 때 병자호란 이후에 제작된 작품임이 틀림없다. 따라서 본 항에서는 병자호란 전후의 시대상황을 검토하여 <박씨전>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추정하고자 한다.

조선은 親明勢力이었던 이성계가 개국한 이래 국초부터 명에 대하여 사대관계를 유지했었다. 그 후 임진왜란을 당하여 20여만의 명군이 출병한 뒤로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崇明思想은 극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韓 · 明의 친선관계는 머지않아 후금의 진출로 미묘하게 전개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의 상황을 보면, 명은 16세기에 들어 여진에 대한 견제력이 약화된 데다가 임진란으로 인하여 국력이 극도로 소모된 상태였다. 이 틈을 탄 여진은 명의 통제를 벗어나게 되었고, 만천지방에서 '누루하치'가 각 부족을 통합, 만천의 태반을 장악하고 1616년 스스로 후금국의 汗이라 칭하여 위세를 떨쳤다.

명은 후금을 토벌코자 임진란 때의 원병을 빙자해 조선에 출병을 요구하였다. 조선은 임진란으로 인해 국가 재정은 몹시 어려웠고, 후금의 보복 또한 두려워 주저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유교적 명분론에 밀려 1618년, 광해군은 병력을 출동시켰고, 이로부터 조선은 명과의 숙명론적 명분론에 휘말려 비극을 자초하기 이른다. 명군은 패전하였고, 강홍립과 김응서는 조선의 출정이 부득이 하였다는 뜻을

---

26) Rene Wellk & Austin Warren, 李京洙譯,『문학의 이론』, (문예출판사, 1987), p.148.

전하고 후금에 투항하였는 바, 이것은 출병 전에 광해군으로부터 형세를 보아 向背를 정하라는 밀지를 받았던 까닭이다. 이는 명과 후금사이에 끼어 친선관계를 동시에 도모하려는 일종의 중립정책으로 실리를 취하려는 외교수단이었다.

광해군의 외교정책은 일부 명분론자들에게 갖가지 방해를 받아 정책 수행에 곤란을 겪기도 했으나, 북방 정세를 예지한 광해군의 정책은 일단 성공하여 직접적인 무력충돌은 피할 수 있었다. 1623년, 인조반정이 일어나고 광해군이 물러나자 이 균형은 깨어지고 말았다. 이 시기 명의 모문룡은 조선에 주류하면서 후금을 견제하였는데 조선이 은연히 그를 도왔고, 또한 인조반정으로 정권을 잡은 서인들은 對明事大의 유교적인 명분론을 내세워 후금의 비위를 거슬러 놓았다. 후금의 태종 또한 그의 父 태조가 조선에 대하여 화친정책을 치하였음을 반하여 主戰論을 가졌던 인물이었다. 이러한 정황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정묘호란이 발발하게 되었으니 인조 5년 丁卯(1627) 正月에 후금은 개전을 결의, 조선을 정벌하여 명의 본토 진입전에 그 후환을 없애고 또 조선과의 통교로써 무역상의 이득을 얻고자 하였다. 후금은 조선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지 않고 강화를 맺고 순순히 물러갔으나, 이 강화는 일시적 방편에 불과하였다. 정묘호란 뒤에 후금은 조약을 어기고 禮幣 외에도 물품을 요구하는 등 파약행위가 날로 심해 갔다. 이에 조선에서는 斥和拜金의 여론이 팽배해져 갔다. 한편, 후금은 만천 전역을 장악하고 조선에 대하여는 兄弟之盟을 君臣之義로 고쳐 맺으려 하였고, 歲幣를 늘릴 것을 요구해 왔다. 또 인조 14년 후금 태종을 존호를 올리려는 議를 조선에 알리기 위하여 용골대와 마부대을 파견하니 조선의 격앙은 절정에 달하였다. 인조가 척화론을 쫓아 이들 사신의 접견을 거절, 후금의 국서를 받지 않고 이들을 감시하니 이들은 사태가 위급하여짐을 보고 민가의 말을 빼앗아 도망하였다. 후금은 조선의 결의를 알고 재침을 감행키로 한다.

仁祖 14(丙子)년 12월 청태종은 10만 대군을 모아 親征 10여일 만에 서울에 육박하였다. 전황이 급하자 조정은 대군 · 비빈 · 종실들을 강화도로 피신시키고 이어 인조도 江華避兵을 꾀하였으나 이미 마부대가 홍제원에 이르러 강화도의 통로를 차단한 뒤라 성내로 돌아오는 수밖에 없었다. 비록 큰 전투는 없었으나 적의 포위

속에서 혹한과 싸우고 식량 또한 점차로 곤란해져서 성중의 비참한 상태는 형언하기 어려웠다. 성내에서는 主和와 斥和로 갈라져 國論의 통일을 보지 못했고, 사기는 날로 떨어져 민심은 흉흉하였다. 적세는 너무 강한 반면 믿었던 勤王兵마저 패해 희망이라곤 없었다. 더욱이 인조반정의 중심인물로 斥和에 가담했던 김류가 변절과도 같이 主和에 가담하자 주화파는 세력을 얻어 강화를 서둘렀다.

드디어 仁祖는 강화가 함락되고 세자와 대군이 인질로 붙잡혔다는 파발을 접하자 척화파를 물리치고 주화파에 동조하니 45일 간의 항쟁은 비극적인 막을 내렸다. 1월 30일 인조는 성을 내려가 삼전도에 마련된 수강단에서 갖은 수모 끝에 城下之盟[27]을 맺었다. 인조는 청황에게 三排九叩頭의 예를 갖추어 굴욕적인 항복을 하게 된다.[28]

비록 戰期는 단기간이었으나 그 막대한 피해는 임진왜란에 버금가는 것이었고 조선으로서는 일찍이 없었던 일대 굴욕으로 결말을 맺게 되었다. 이러한 치욕의 결과는 더욱 암담하였다. 명과의 단교, 청에 대한 臣禮, 청의 대명 공격시 원병 파견은 물론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이 볼모로, 척화파의 강력론자인 홍익한, 윤집, 오달재 등 三學士가 끌려가 세자가 보는 앞에서 몽둥이로 맞아 죽음을 당하고, 김상헌도 뒤에 잡혀가 옥고를 치루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문화적 우월감이 청에 대한 반감을 돋우어 비록 무력에 굴복하기는 하였으나 그 후로도 조선에서는 오랫동안 청을 치려는 움직임과 청에 대한 적개심이 사라지지 않았다.[29]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양란을 경험한 민중은 치욕스러운 패배를 만회해 줄 영웅의 출현을 그리게 되었다. 양란으로 인해 영웅을 잃은 아쉬움과 영웅에 대한 연민이 작용하여 이들을 주인공으로 한 영웅소설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임진왜란 후 소설문학은 애국적인 주제의 소설들이 본격적으로 창작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

27) 군신의 예를 행할 것, 명의 연호를 폐하고 명의 誥論冊印을 내놓을 것, 청의 정명 요구를 수락할 것, 가도 공격시에 병선 50척을 내줄 것, 내외 조신과 혼인할 것 등 6항.

28) 진단학회, 『한국사-근세후기 편』, pp.101-121.

29) 『韓國史槪說』, (교재편찬위원회, 1984), p.204.

외래 침략을 반대하고 민족의 존엄을 지켜나가는 투쟁에서 발휘된 애국심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17세기 소설의 특징적인 것은 거의 모든 작품들이 조선의 역사에서 의의를 갖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에 대항한 애국투쟁의 현실을 소재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박씨전> 역시 청나라의 침입을 물리친 병자호란의 역사적 현실을 소재로 하여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조선에는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중국의 演義流 소설이 유입되었다.[30] 임병양란이 우리에게 인명이나 물질적인 피해를 입힌 것은 사실이지만,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중국과 일본을 통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기회를 만들어준 것도 사실이다. 소설에 있어 <三國志演義>는 그 대표적 작품으로 肅宗 때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인쇄되어 광범한 독자층이 형성하게 되는데, 김만중의 『西浦漫筆』에서는 이때 이미 번역되어 규문에 유행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양란을 겪으면서 민중들은 내적으로 지배계층인 관료, 사류계급을 차츰 불신하게 되고, 외적으로는 민족적 적개심에 불타 영웅의 출현을 갈망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류 속에 군담 · 실기들이 윤색되는 영웅 · 군담소설이 싹틀 무렵에 마침 <三國志演義>등의 시대사조를 담을 그릇을 찾게 된 셈이다.[31]

이렇듯 <박씨전>은 병자호란 당시의 실상을 사실대로 재조명하여 당대의 무력한 정치 · 사회상을 폭로하는 한편 참패의 치욕을 정화하려는 민중의 염원에서 비롯된 당시대인의 의식을 반영한 작품인 것이다.

2. 여성 의식의 대두

<박씨전>의 창작 시기와 작가의 추정에 있어 여성 의식의 대두는 중요한 핵심이

30) 한영우, 『조선전기 사학사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81), p.8.

31) 이경선, 『삼국지연의의 비교문학적 연구』, (일지사, 1976), pp.119-129.
소재영, 『壬丙兩亂의 충격과 문학적 대응』, (지식산업사, 1982), pp.418-419.

아닐 수 없다. 병자호란 후 청군에게 잡혀간 부녀자들은 비첩, 기생, 심지어는 농경이나 병정으로서의 노역을 강요당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다행히 贖還되어 온 여자들도 있었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사지에서 돌아온 사람에 대한 환영이 아니라 失節이라는 오명이었다. 즉 이러한 부인들의 가족은 失節한 부인을 아내로 또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없다하여 離異를 허락해 달라는 상소문을 잇달아 올렸다. 인조 또한 연민의 뜻을 표하였으나 대부분의 사대부들은 조선은 동방예의지국이고, 열녀는 不事二夫라는 관념 때문에 贖還된 부녀자들의 대우문제에 있어서 부정적이었으니 失政을 한 위정자들은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고 난리에 휩쓸린 부녀자들만이 사회와 가정에서 버림을 받았던 것이다. 문학사가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임진란 후 대두되기 시작한 여자장사의 무용담은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은 여자들의 의곡된 자기표출[32]이었으며, 제도적 장치에 의해 순종된 생활만 하던 여성들은 전쟁으로 인하여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된 것이 자신들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여성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무력한 남성을 능가하는 여성영웅을 창출하여 그들의 억눌렸던 감정의 해소와 발휘를 도모하려는 열망이 구국의지와 함께 작용하게 된 것이다. 이는 바로 외적에 대한 정신적 각성과 새로운 의식의 무장을 갖추게 한 시기로서 바로 이 시기의 사회적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박씨전>을 탄생시켰다고 볼 수 있다.

창작시기에 관한 연구가 작품에 투영된 시대 상황과 함께 인물이나 이본, 향유 독자층으로 추정 된다고 할 때 본 항은 이러한 여성 의식의 대두를 바탕으로 <박씨전>의 창작 시기와 작가를 추정해 보았다.

<박씨전>의 창작 시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연구된 바 병자호란 직후에 출현했으리라는 설과 그 이후에 출현했으리라는 설로 나누어지는데 그 연구결과를 종합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규복은 "한국군담소설의 소설사적 시대구분의 是正"에서 <박씨전>은 여타 군담소설과 같은 임 · 병란 직후로 봄이 옳다[33]고 하였고, 김태준은 『朝鮮小說史』에

32) 김현 · 김윤식, 『한국문학사』, (민음사, 1973), p.31.

서 “肅宗祖를 中心으로한 黃金時代의 文藝”편에서 다루고[34] 있으며, 또 서대석은 임 · 병양란 직후에서 實記 · 實譚이 창작되었고 역사군담 소설의 하나인 <박씨전>은 숙종 이후에 창작되었을 가능성이 짙다[35]고 보았으며, 김기현은 <박씨전>이 <임경업전>과 때를 같이 하여 숙종조부터 영조조까지인 100년 사이에 성립되었다[36]고 보았다. 또한 소재영은 같은 시기추정 숙종대에 대한 사회사적 근거를 들고 있으니, 임란이 발발했던 선조에서 효종과 현종연간에 이르는 17세기 6,70년간은 양란을 치른 격동의 와중이었으며, 그 후 숙종 40여년간은 봉건체제의 붕괴와 더불어 사회제도 및 사회계층의 개편으로 새로운 질서와 변화를 도모한 시기로 이 무렵에 와서야 비로소 문학적 대응자세도 갖추게 된 것으로 따라서 <박씨전>은 숙종조에 쓰여졌다[37]고 보았다. 또 다른 시기추정에서 신기형은 한글에 의한 군담소설의 유행은 북벌론과 적개심이 고조된 효종 이후로 그 후 실학사상이 부흥됨에 따라 양란의 복수문학이 전개되었다고 보고 연암소설의 뒤인 영 · 정조로[38] 추정했으며, 성현경도 영 · 정조대가 문예 부흥기임을 감안할 때 <박씨전>을 비롯한 여걸소설은 영 · 정조 이후에 이루어진 것[39]으로 간주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대부분 시대사조와 관련해서 <박씨전>의 성립을 다룬 것으로 대체로 병자란 직후로부터 영 · 정조대 이후인 17세기에서 19세기까지로 폭넓은 시기분포를 보이고 있다.[40]

한편 작품의 창작시기에 관한 연구는 작품에 투영된 시대상황과 인물이나 이본

---

33) 정규복, 「한국군담류소설의 제문제」, 『국어국문학』34 · 35호, (국어국문학회, 1967), p.317.

34) 김태준, 앞의 책, p.98.

35) 서대석, 「군담소설의 출현동인 반성」, 『한국고전소설연구론집』1, (계명대학교출판부, 1971), p.126.

36) 김기현, 앞의 책, p.34.

37) 소재영, 앞의 책, p.421.

38) 신기형, 앞의 책.

39) 성현경, 앞의 책.

40) 최경희, 「박씨전 연구」, (성신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pp.13-14.

등을 통해 추정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향유 독자층도 중요한 요건의 하나다.

<박씨전>은 병자란 이후인 17세기 말부터 18세기의 민족적 감정과 근대적 사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남성들의 무능력을 체험한 여성들의 사회적 각성과 함께 효종시대의 북벌론 고조가 당시대의 민중들의 욕구로 작품형성에 작용되어진 것이다. 또 인물에서 이시백, 임경업, 김자점 등 역사적 인물이 가공의 인물인 여성 박씨에 대비되어 오히려 사실보다 무기력하고 나약한 부정적 인물로 그려진 것은 역사적 인물이 사망한 후 적어도 18세기에 작품이 형성되었을 소지를 충분히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18세기는 실학사상이 부흥된 일대 사회 전환기로 <박씨전>은 이러한 시대적 변혁요구에 앞서 대두된 최초의 여성 국문소설로 박씨와 시비 계화의 두드러진 활약상은 당시 무너지기 시작한 남녀 신분질서의 의식변화와 민족적 자긍심의 표출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소설독자층의 형성과 소설의 판본과의 관계를 볼 때, 먼저 17세기에 이르러 형성되기 시작한 여성독자는 18세기에 더욱 확대되어 한글소설에 있어 독자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18세기 중엽 이후에는 서울을 중심으로 부유한 여성 사이에서 소설 읽는 것이 유행했던 사실과 또 소설 방각본이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에 출현된 점[41]이라는 두 견해에서 <박씨전>은 소설 방각본이 출현하기 전 곧 18세기 중엽에 필사를 중심으로 제작되었다가 후에 활자본으로 등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박씨전>이 18세기 중엽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은 대부분 여장군등장소설의 형성이 18세기 말에 가능했다는 견해[42]에서 <박씨전>의 초기의 형태로 전쟁의 간접 참여와 시비 계화를 통한 박씨의 지시가 당시의 제한된 여성활동을 반영시킨 것으로 <박씨전>은 대부분 본격 여장군소설과는 달리 이보다 조금 앞선 18세기 중엽의 작품으로 볼 수 있겠다.

<박씨전>의 작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씨전>은

---

41) 大谷森繁, 「조선후기소설독자연구」, 『民族文化硏究叢書』23, (고대민족문화연구소출판부, 1985), pp.43-45.

42) 여세주, 「여장군 등장의 고소설연구」, (영남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p.133.

국문소설이 형성되고 발달하던 18세기를 중심으로 성립된 것으로 작품의 명칭이나 여주인공 박씨의 활약 등을 볼 때, 여성 중심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특색이므로 이 점에서 작가 연구의 단서를 마련해 준다고 볼 수 있다.

<박씨전>의 작가문제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를 보면, 대개의 학자들이 작자미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김기동의 경우는 작자의 사상성에 중점을 두어 여성도 동양적인 관념에서 벗어나 남성과 같이 국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계시해 주려는 것[43]으로 설명하고 있다. 한편 장덕순은 <박씨전>과 <임경업전>이 모두 병자호란을 소재로 청에 대한 복수를 공통 주제로 하고 있으며, <박씨전> 말미에 "이 책에 말이 맛지(맺지) 못함은 일 후에 임경업전에 기록하여 보게 함이라"고 부연한 사실로 미루어 이 두 작품의 작가가 동일작가라고 속단할 수는 없으나, 그 자매적 연관성은 깊다[44]고 해서 두 작품의 관련성을 들어 작가를 추정하고 있다.

또 김인순의 경우, 작가가 여성인 듯 싶은 것이 부인 박씨를 통하여 여성의 위력, 여성의 미, 그리고 일부일처주의 등 새로운 여성관을 부르짖고 있는 것으로써, 무너져가는 유교도덕의 과도사회에 있어 정신적 승리 문학으로 여성운동 전개에 한 몫을 담당한 것으로 여성작가의 역량을 평가[45]하기도 하였다.

이상과 같은 일련의 연구결과를 볼 때 <박씨전>의 작가연구는 주제 의식과 구성, 인물 그리고 서술을 토대로 작품 중에 반영된 여성 의식의 대두와 형성을 살펴봄으로써 또 작가를 추정해 볼 수 있으리라 본다.

우선 그 주제를 살펴보면, <박씨전>은 여성이 남성보다 우위에 있음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가부장제하에 三從之義에 억압되어 살아야 했던 봉건적인 가족제도에서 정신적으로 해방되고자 하는 여성들의 욕구와 여성도 남성 못지않게 우수한 능력을 갖추어 국난을 타개할 수 있다는 의식의 반영으로 여성에 대한 자각과 각성, 그리고 재인식을 촉구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

43) 김기동, 『한국고대소설개론』, (대창문화사, 1956), pp.131-133.

44) 장덕순, 앞의 책, pp.317-318.

45) 김인순, 「박씨부인전에 나타난 여성관」, 『錄苑』3, (이화여대 문리대학, 1961), pp.17-23.

또 <박씨전>의 구성에서 전반부는 결혼 후 가정 내 갈등으로 박씨는 자신의 추한 용모 때문에 시어머니와 남편으로부터 박대와 괄시를 받는 시련의 과정인데, 이는 또한 당시 조선사회에서 부당한 대우와 억눌림을 당하던 여성의 한 단면을 여실히 보이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 후 박씨는 탈갑을 통해서 외모나 능력에서 완벽함을 갖추는데, 탈갑의 의미는 여성 입장에서 미모를 갖추려는 염원의 실현이며, 또 그 능력을 통해서는 열등의식의 극복이라는 의의를 지닌다.

또 후반부는 병자호란시의 전쟁담으로 박씨는 병자란을 예측하기도 하였으며, 후원 避禍堂에서 시비 계화를 통해 호장을 무찔러 국난을 극복함으로써 남성 이상의 능력을 드러낸다.

이처럼 박씨는 지혜와 능력이 남달리 뛰어나지만 조선사회의 관념적 규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다. 이는 박씨가 직접 전쟁에서 활약하지 않고 시비 계화를 통해 활동하는 것을 통해 볼 수 있다. 이처럼 박씨는 일가의 아녀자로 현숙한 아내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곧 양반층 중심의 부녀자로서의 입장을 대변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피화당을 중심으로 한 가정이 작품의 주 배경이며, 전쟁담 역시 가정 중심적이고 여성 주도적 입장이 강한 것으로 볼 때 병자호란 이후 사회 혼란기에 양반 부녀층의 의식적 각성과 더불어 국문소설의 여성독자층의 영향으로 작품이 형성되었다고 보여진다.

또 하나 <박씨전>의 작가가 여성으로 추정이 가능한 점은 박씨가 미모로 변신하자, 이시백이 그동안 박대한 것을 사죄하는데 박씨는 오륜의 도 등을 들어 悔過自責케 하는 것을 보면 분명 작가가 자의식이 강한 여성임을 드러내며, 계층이나 신분면에서는 박씨가 충 · 효 및 부덕을 강조하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평민이 아닌 양반층의 여성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 남녀의 인간적 관계에서 볼 때 탁월한 능력을 소지한 박씨는 변신과 함께 외모로도 완벽함을 갖추지만, 이시백은 무력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남편상으로 오로지 박씨의 내조에 힘입는 불평등한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남편의 냉대와 괄시를 받아야 했던 당시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모순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며, <박씨전>에 나

타난 남성들은 여성들에 비해 무능하고 나약한 인물들로, 이것은 불평등한 대우에서 야기되는 부정적 평가이며, 여성에 대한 능력과 대우를 제대로 인정받고자 하는 여성의도가 작품에 반영되었음을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설화의 수용

설화는 구비 전승되는 민중들의 가장 진솔한 표현 수단의 하나이다. 그러면서도 설화는 共有性을 가진다. 때로는 구비전승의 유동성에서 벗어나 문헌에 정착되기도 하나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어느 한 개인의 감정이기 보다는 집단 속에서 면면히 이어온 共有素를 지니고 있다. 물론 이러한 共有素는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향유층에 따라 변하기도 하고, 소설이라는 그릇에 담겨져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런데 설화의 속성은 傳記나 史實을 근거로 해서 민중의식이 수용될 수도 있으나, 설화 그 자체에는 사실과 또 다른 집단의식의 소산으로 허구의 의미가 지배적이다. 이 허구의 의미는 집단적인 내면세계의 표현이며, 자유분방한 상상력에 의해 나타나는 새로운 발현이다. 이와 같은 새로운 발현이 <박씨전>에서 갖가지 설화로 수용되었는데, 그것은 어느 한 시대에만 유포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구전되어 오다가 자연스럽게 소설화 과정을 입은 것이다. 본 항에서는 <박씨전>의 주요 의미로 작용하는 변신과 여성우위적 모습, 천의를 중심으로 각각의 관련설화가 <박씨전>에 어떤 형태로 수용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變身說話

<박씨전>에서 변신설화의 연원을 추녀라는 공통 인자에서 찾아보면, 인조 17년 金文谷의 부인 羅氏가 추녀였기 때문에 초례 초야에 소박을 맞았다는 일화[46], 구

달이라는 사나이가 金壽禮의 딸과 혼인하였으나 얼굴이 너무나 추해서 처녀가 아니라는 핑계로 내쫓았다가 왕명에 의해 다시 맞아들인 실화[47] 등이 있다.

<박씨전>의 설화를 추적한 논문으로는 鄭忠臣의 難事를 탁월한 지모로써 타개한 설화인 『靑丘野談』의 '練光亭錦南應辯'에서 찾은 것[48], 비루한 말을 사서 길러 돈으로 환전하는 면으로 그 연원을 온달에서 찾은 것[49]도 있다. 그러나 위의 설화들은 추녀였다가 절세미인으로 변신하며 초인적인 능력과 예지를 지닌 여성과는 거리가 먼 설화들이다. <박씨전>을 불교 소설류와 동궤선상에 두고 전형적인 설화를 찾는다면, 波斯匿王 醜女金剛에서 찾는 것[50]이 보다 근원설화에 접근할 수 있다. 여기에는 인도의 고사가 동국에 전래된 공간적 거리감이 문제점으로 등장한다. 이는 자연스럽게 醜女金剛說話가 전래되어 <金剛公州傳>으로 정착하고, 후대로 내려와 <금강공주젼>이 『如是我聞錄』 같은 책으로 등재되기에 이르렀음을 보아 문제점은 스스로 극복된다.[51]

<금강공주젼>의 변신설화 부분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 파사부왕의 딸로 태어난 금강공주는 날 때부터 얼굴은 물론 온몸이 추악하기가 말로 다 할 수 없었다. 그래서 공주는 심궁 독실에 밀폐된다. 부왕의 주선으로 가난한 선비와 결혼한 공주는 외모로 인해 부부간의 금실에 금이 간다. 그런 박대 속에서도 공주는 남편을 출세시키고 가산도 늘린다. 공주는 남편과 함께 외출하지 못함이 한이 되어 부처님께 참회의 불공을 드리게 되고 공주의 불심에 감읍한 부처님은 전생의 업보인 추악한 탈을 벗기고 절세미인으로 변신시켜 준다. 부마는 공주의 변신에 기뻐하고 화합하여 부부 금실이 좋아졌다. 이들 부부는 부처님의 영험을 찬탄하고 살아가니 집안에 영

46) 김태준, 『朝鮮小說史』, (청진서관, 1939), pp.74-75.

47) 세종실록, 10년 10월.

48) 이석래, 「고대소설이 미친 야담의 영향」, 『성곡논총』3집, 1972.

49) 신동일, 「李朝戰爭小說 朴氏傳 硏究」, 『육사논문집』6집, 1968.

50) 사재동, 앞의 책, p.379.

51) 김장동, 앞의 책, p.122.

화가 가득했다.[52]

이상과 같은 추녀금강설화와 유사한 내용을 <박씨전>에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금강산에 살고 있는 박처사의 딸은 날 때부터 천하추물이다. 처사는 딸이 과년해지자, 한양이 명문인 이득춘과 혼사를 맺는다. 박씨는 시집 온 날부터 외모로 인해 시모와 가족들에게 갖은 구박을 당한다. 시부의 도움으로 피화당을 지어 거처하게 된다. 박씨는 하룻밤에 시부의 조복을 지어내는 신이를 보이고 비루한 말을 사서 길러 팔아서 가산을 늘린다. 또한 과거를 보는 남편에게 연적을 주어 장원 급제를 시킨다. 시집 온 지 3년 후 박씨는 업보가 다 되었다는 박처사의 지시대로 허물을 벗어 절세가인으로 변신한다. 남편은 박씨에게 박대한 죄를 사죄하고, 부부 금실이 좋아졌다. 남편은 평양감사로 부임해서 선정을 베푸니 집안에 영화가 가득했다.

위의 추녀금강설화와 박씨전의 유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박처사와 왕, 박씨와 공주, 사대부의 아들과 부마라는 인물의 유형과 성격은 다소 변이되었으나, 사건이나 구성적 골격은 흡사함을 발견하게 된다.

2) 女性優位說話

여성우위설화에서는 현실에서 보이는 남존여비사상에서 벗어나 여성이 우위에서 남성을 지휘하고 적을 무찌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다 쓰러져가는 국운을 되살려 많은 민생을 도탄으로부터 구해 내는 여성의 활약상을 보여줌으로써 현실에 억눌렸던 여성들의 내면의식들이 설화에 녹아들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작품의 설화로는 정기룡, 김언, 김천일, 곽재우 등의 설화를 들 수 있다.

---

52) 김장동, 「금강공주전에 대하여」, 『동방학지』 23 · 24호, 1980.

정은 소금장수를 하며 가난한 살림을 꾸려나가는 중, 꿈의 계시로 전주에 갔다. 전주 감영의 향감 권모는 先見之明과 知人之鑑을 타고 난 이인인 딸을 두었으나 과년하도록 배필을 정하지 못했다. 권소저는 정을 자신의 배필로 정하여 그녀의 부모와 주위의 온갖 반대에도 불구하고 혼인에 이른다. 그녀는 앞날을 예지하는 능력이 있어, 남편이 나라를 위해 큰 공을 세우도록 온갖 뒷바라지를 한다. 임진란이 일어나자 그 동안 잘 간수했던 병기로 남편에게 의병을 일으켜 싸우도록 권유한다. 정은 아내의 뜻에 따라 의병의 선봉장이 되고, 조철의 휘하로 들어가 큰 공을 세운다. 그런데 정은 이러한 모든 공을 모두 그의 아내에게 돌려 주었다.[53]

鄭起龍은 임진란 때, 방어사 조철을 따라 거창 · 부산 등지에서 적을 무찔러 공을 세웠고, 후에는 삼도통제사가 되어 수군을 거느린 명장[54]으로 좌찬성 鄭成浩의 아들이다. 그는 집안이 가난할 까닭도 없는데, 그를 보잘것없는 소금 장수로 허구화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전공을 아내에게 돌리고 있다.

조선시대 사회는 여성의 지위와 행동반경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통적인 여성상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새로운 여인상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러한 설화의 집단의식은 남성을 부속 인물로, 여성을 일선에 내세우는 적극적인 주동 인물로 형상화해서 여성우위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김언은 어려서부터 집안이 가난하여 스물이 넘도록 장가를 들지 못하다가 같은 동네에 사는 추녀이며 과년한 처녀와 결혼하게 된다. 그 부인의 외모는 비록 추하였으나 지모와 識鑑이 비상하였다. 하루는 부인이 돈 석 냥을 주어 비루먹은 말을 사오게 한다. 그 부인은 하인이 사온 말을 친히 돌보고 잘 먹여 준마로 살찌게 했다. 또, 부인은 마을 앞 황무지를 옥답으로 만들어 마을 사람들에게 곡식과 박을 심게 하였다. 임진란이 일어나자 부인은 곡식을 군량미로 사용하고, 박은 쇠뜸박으로 이용해서 왜적을 무찌르도록 남편에게 이른다. 김언은 부인이 기른 말을 타고 의병장이 되어 큰 공을 세웠다. 그런데 그의 공을 그는 부인에게 돌려 주었다.[55]

---

53) 『大東奇聞』卷 1, '鄭起龍以妻貲以馬成功'條 요약.

54) 李朝名人列傳.

김언은 退溪 문하에서 수학하여 성리학을 대성시켰고, 임진란이 일어나자 군량을 보급하고 의병을 모아 대공을 세웠다. 그리고 만년에는 이조판서까지 추서 받은 실존 인물이다.[56] 이러한 실존 인물을 극빈한 가정에서 성장했고, 만혼에 더욱이 추녀에게 장가들었다는 것은 허구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부인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며, 그녀의 계시에 의해 대공을 세우는 수동적인 부속 인물로 변이되어 설화로 나타났다. 이러한 설화는 다름 아닌 여성우위의식이 가미된 창조적 설화라고 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설화로 김천일부인설화도 있다.

> 나주에 사는 김천일의 아내 양씨는 지감이 있어 임진란이 일어날 것을 예견하고 무주로 들어가 화전을 일구어 매년 곡식을 저장했다. 또 부인은 박을 많이 심어 거두어서는 창고에 보관하였다. 드디어 임진란이 일어나자 김천일은 부인의 지시에 따라 의병을 일으켰다. 김천일의 부인은 왜병에게 조선군이 장사패임을 가장하기 위해 검은 칠을 한 바가지를 병사들에게 씌우고 따로 80근짜리 쇠바가지를 길가에 버려두게 하였다. 왜병은 그 철모를 발견하여 들어보고는 천일의 군사가 모두 장사패인 줄 알고 그들을 보기만 해도 달아났다. 그로 인해 김천일은 큰 공을 세웠고, 그의 모든 공을 부인인 양씨에게 돌려주었다.[57]

김천일은 임진왜란 때 전라도 나주에서 의병을 일으킨 명장이다. 행산 고성의 적을 무찌르고 강화로 진을 옮겨 연안 일대의 적을 소탕한 수많은 공을 세웠는데, 진주성 싸움에서 열전을 계속하다가 남강 기슭에서 장렬한 생을 마쳤다. 그런데 이 설화 역시 역사상의 모든 전공을 현명한 처의 선견지명의 결과로 돌리고 있어 여성우위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하겠다. 이 설화는 곽재우설화와도 흡사하다.

이밖에도 夫娘說話[58]는 錦南 鄭忠臣을 허구화했는데, 夫娘은 錦南의 難事를 예

55) 車相瓚,『海東艶史』, pp.162-167.

56) 李朝名人列傳.

57) 嵩陽山人,『逸士遺事』卷 6, 梁夫人 條 요약.

지하고 이에 대처할 만큼 선견지명이 뛰어난 여성이었다. 정충신도 그의 공을 모두 소실인 부랑에게 돌리고 있다. 李起築說話는 여성의 일상성을 우위에 두고 형상화한 특이한 설화이다.[59] 그는 인조반정 때 2등 공신으로 병자란 때에는 인조를 모시고 남한산성으로 피난했고, 어영대장으로 적과 싸운 실존 인물이다.[60] 그런데도 그를 허구의 인물로 가상의 부인을 등장시켜 설화화했으며, 그의 공훈도 부인의 힘으로 돌리고 있다.

위에서 살펴 본 설화의 남주인공들은 조선시대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이며, 무능인이라는 공유소로 허구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부인의 탁월한 선견지명에 따라 행동하는 부속 인물로 전락되어 있다. 그런 반면에 남존여비의 시대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활동과 제약을 한정받고 있는 여성들의 부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다. 이들 여성은 지인지감과 선견지명을 가진 異人과 같은 비범한 여성들이며, 여성이란 신분에는 조금도 구애받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한다. 그들은 미래를 예지하고 남편을 출세시키는 한결같이 적극적인 여성상들이다. 이런 설화의 근저에는 현실적으로 퇴락된 여성 지위를 정신적으로 정화해 보려는 여성들의 자각의식이 짙게 깔려 있음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위의 설화 중에서 어떤 설화가 <박씨전>으로 전이되어 여성우위의식을 낳았는지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설화들이 총체적으로 집약되어 <박씨전>으로 수용된 것은 분명하리라 생각된다.

> 박씨는 추녀로 시집을 오면서부터 남편과 시집 식구들로부터 천대와 멸시를 받는다. 박씨는 그런 시집살이 생활 속에서도 비루 먹은 말을 3백냥에 사 이를 살찌게 키워 3만냥을 받고 팔아 가산을 늘린다. 그녀는 시부를 위해 하룻밤만에 조복을 지어내는 신이한 능력을 발휘한다. 또한 과거를 보는 남편에게 연적을 주어 장원 급제하도록 한다. 조선의 신인을 죽이려고 잠입한 기홍대를 피화당으로 유인해서 혼을 낸 다음, 천의를

58) 嵩陽山人, 앞의 책, 夫娘.

59) 앞의 책, 鄭氏.

60) 李朝名人列傳.

순수시켜 살려 보낸다. 국난을 예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남편에게 일깨워 준다.

이처럼 박씨의 선견지명은 제시된 설화와는 달리 단 한번으로 끝나지 않고 <박씨전>의 요소요소에 장치되어 흥미를 자아내고 있다. 그리고 이시백은 명문 거족의 후예로 입신양명을 꿈꾸는 능동적 인물로 끝까지 남성상위를 고집하는 주인공이며, 박씨보다도 모든 면에서 뒤떨어지지만 남성과 남편의 위치에서 한 치도 양보하지 않는 인물로 전형화 되어 있다. 또한 박씨는 이름도 없는 박처사의 딸로 전생에 입은 업보로 인해 얼굴은 추녀이며, 온 몸에서 악취를 풍기는 비극적인 인물로 성격화한 소설적인 차이는 물론 있다. 비록 지혜와 덕행을 고루 갖추고 선견지명을 가진 異人이라 하더라도 남편에게 소박 받고 시어머니에게 구박받는 것은 극적 변신을 전제로 한 소설적인 장치인 것이다.

이처럼 <박씨전>의 박씨가 설화와 같거나 설화와는 상반된 인물로 부상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시대상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박씨는 실제로 지인지감하는 초인적인 예지의 인물이었으나, 조선시대의 여성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내조에 그쳤으며, 순종과 겸양의 부덕을 갖춘 현실적인 여인상으로 묘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기에 박씨는 설화처럼 국난을 예지하고 이에 대비하기는 하지만 직접 행동 일선에 나서지 못하고 남편 또는 계화로 하여금 그 일을 대행토록 설정했다. 이러한 이면에는 조선시대의 男尊女卑 · 女必從夫의 사회, 종속적이며 체질화된 경직사회에서 살아온 여성의 삶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당시대의 여성들이 현실의 제도에 대한 무의식적인 저항, 자기 의지에의 希求 등이 설화 속에 잠재하다 병자란이라는 치욕적인 현실에 충격을 받고, 그것이 박씨와 같은 초인적인 예지와 도술을 가미시켜 여성우위의 새로운 여인상이 <박씨전>으로 전이된 것으로 보인다.

3) 天意受用 說話

임진란과 병자란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안겨다 주었다. 그

래서인지 諦念과 팔자소관이라는 숙명성이 팽배하게 되었고, 현실적인 패배를 정신적인 승리로 정화하려는 天意思想이 당시대인들에게 스며들기 시작했다. 천의에 의한 재난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극한상황이다. 이러한 천의는 예정된 재난이며, 민족적인 수난이기 때문에 달게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재난은 이 민족에게 내려진 형벌이 아니라, 숙명적인 시련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러기에 이를 天運 · 天敎 등 천의로 집약시켜 체념화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 이 天意思想은 체념을 낳을 수도 있으나, 때로는 현실적인 패배의 와중에서도 정신적인 용기와 미래에의 삶을 활성화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고, 정신적인 우월의식으로 비화해서 민족적 자존의 긍지를 낳기도 했다. 나아가서는 현실적인 패배를 정신적인 차원으로 정화하는 민족의 심층에 뿌리를 내리기도 했던 것이다. 비록 현실적으로는 왜나 청에게 굴욕을 당하고 명나라에 원병을 청하는 참담한 실정이었으나, 이를 천의로 돌려 수난이나 치욕도 하늘의 뜻이며 필요한 시련으로 여겼던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天意思想이 안일한 현실과 무기력한 삶을 배태한 것만은 아니었다. 곧 예지를 통해서 구체화하고 약소민족의 한정된 반경을 합리화했으며, 현실적인 패배를 정화시켜 새로운 패배의 미학을 낳았다. 이와 같은 미학은 자연스럽게 설화로 스며들었고, 이러한 설화는 소설 속에서 전이되기도 했다. <박씨전> 또한 예외는 아니어서 天意思想을 요소요소에 장치해 두었다.

> 柳居士는 안동사람으로 西厓의 삼촌이다. 하루는 서애와 바둑두기를 하는 도중 왜승이 조선에 잠입함을 예지하고 서애를 통해 자신의 집으로 안내토록 하였다. 왜는 조선침략을 달성하기 위해서 서애를 비롯한 조선의 인물을 살해하고자 왜승을 조선에 잠입시켰던 것이다. 왜승은 거사에게 사로잡혔다. 하지만 거사는 왜승을 놓아주며 탄식하여 가로되, "我東이 칠년 厄運은 면키 어려운지라. 내 너의 무리 보기를 썩은 쥐같이 아나니 죽여도 무익한지라. 이제 너의 性命을 饒貸하나니 돌아가라" 하였다. 임진란 7년은 이미 하늘이 정한 일이므로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이다.[61]

61) 최웅, 『주해 청구야담』 卷 3, (국학자료원, 1996), pp.296-298 요약.

이 柳居士說話는 왜승의 잠입을 미리 예지하고 그를 사로잡았으나, 모든 것이 天數임을 알고 놓아 주었다. 이는 천의사상, 곧 숙명관 그것이다.

> 東皐 李相公에게는 아끼는 傔從 皮姓이 있었다. 하루는 피겸이 이준경에게 아끼는 외딸의 배필을 부탁했다. 이에 이준경은 의복이 남루하고 용모가 추루한 상걸인을 사위로 삼게 해 주었다. 상공의 예지를 믿고 피겸은 혼례를 행하였다. 어느 날 상공은 무위도식하는 皮壻의 손을 잡으며 말하기를 "장차 이일을 어찌 할꼬?"라고 물으니 皮壻는 "천운이오니 어찌하리이꼬."라고 체념한다. 상공은 皮壻가 異人임을 알고 자신의 가족을 부탁하고 숨을 거두니 임진란이 일어나자, 皮壻으로 인해 상공과 피겸의 집안이 무사했다.[62]

이 擇傔婿說話에서도 임진란은 천수이니 달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숙명성이 내포되어 있다. 그런데, 이 설화는 일개 집안은 난으로부터 보호할 수는 있어도 국가라는 조정은 난으로부터 구제할 수 없다는 제한성이 깃들어 있다.
이 외에도 李珥豫知說話[63], 林將軍說話[64]등에서도 천의사상을 엿볼 수 있다.

이상의 설화에 나타난 천의는 이인적인 인물들로부터 선견되거나 계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인적인 인물은 인간 이상의 존재, 곧 신처럼 형상화되어 있다. 그것은 양대 병란에 시달린 당시대인들의 심층에 뿌리내린 감정, 곧 패배를 보다 높은 차원으로 정화하려는 자존과 우월의식의 형상화에서 비롯된 듯하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패배한 치욕에 대한 정화 수단으로 천의사상을 수용한 것은 민족성과도 결부된다.

이러한 천의사상을 <박씨전>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박씨는 조선의 신인과 임경업을 살해하려고 잠입한 기홍대를 사로잡아, 천명에 순수

62) 앞의 책, 卷 1, pp.303-310 요약.

63) 앞의 책, 卷 3, pp.251-254.

64)『鶴山閑言』, 林將軍 條.

하고 이에 순종하라면서 살려 보낸다. 피화당에 침입한 적장에게 시비 계화를 통해서 천의를 모르고 침입했으니, 당연히 천의를 순수하기 위해서도 원망하지 말라며 죽인다. 박씨는 볼모를 잡아가는 적장 앞에서 세자 · 대군을 잡아가는 것은 천의라서 어쩔 수 없으나, 왕비는 모셔 갈 수 없다고 끝내 이를 용납하지 않는다. 의주에서 적을 가로막은 임경업에게 박씨는 조서를 보내어 이는 천의이니 항거하지 말고 길을 열어 주도록 한다.

이러한 설화들이 모여 <박씨전>으로 수용되어 구성의 골격을 이루었다. 박씨는 전생의 죄업으로 추녀로 태어났으나, 그 대신 초인적인 예지와 도술을 지녔는데, 그것도 바로 천의였다. 그녀는 천의대로 예지를 행사하는데, 기홍대의 잠입을 예견하고, 그를 도술로 사로잡았다가 살려 보내는 것도 천의를 따르는 것이었다. 박씨는 호란을 예지하고 이에 대처할 방도까지 남편에게 일러주지만, 조정 간신의 방해로 결국 남한산성에서 국치를 당한다. 그것도 천의에 의한 불가항력으로 수용되었다.

설화의 핵심은 천의였듯이, <박씨전>의 그것도 천의에 순종하는 것, 곧 모든 것을 천운으로 돌려 체념하는 숙명의식으로 정화된다. 이러한 심층에는 당시대인들의 보상심리가 작용하고 있는데, 설화에 나타난 천의는 단순하고 소박한데 비해, <박씨전>의 천의는 민족적인 치욕을 정화시켜 형상화했다는 차이가 있다.

Ⅲ. <박씨전>의 전개 양상과 구조적 특징

일반적으로 소설의 구성은 한 편의 소설에 나타난 행위의 구조[65]라고 했듯이 각각의 사건이 서로 유기적으로 긴밀히 결합하여 통일된 구성미를 이룩하고, 결국은 하나의 주제를 이끌어 나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소설을 성립시키는 기본적 구성이 되는 줄거리를 지닌 사건들은 유기적으로 적재적소에 배치될 때 구성의 의의가 살려지는 것이다. 곧 구성은 소설 성립의 기본적 골격이되, 작품을 통일시켜 주는 기능과 주제를 살리는 기능 그리고 소설이 예술미를 갖게끔 하는 기능을 담당하여 독자로 하여금 감동과 진실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66]

본고에서는 <박씨전>이 갖는 복합적 이중 구성을 전제로 내용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 줄거리를 분석하면서 작품의 전개 양상과 함께 내용에 드러나는 갈등 구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순차적 전개 양상

본 항에서는 먼저 작품을 구성하는 사건들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살펴본 다음, 각 구성의 성격을 규정해 보도록 하겠다.

<박씨전>의 전반부 순차적 구조는 다음과 같다.

A. 인조대왕 시절, 재상 이득춘과 아들 시백이 살았다.

B. 금강산에 사는 박처사가 찾아와 시백의 영웅됨을 보고 자신의 딸과의 혼인을 청하자, 득춘이 허락한다.

---

65) C. Brooks, R.P. Warren, *Understanding Ficition*, p. 80. 韓榮煥 · 李姓敎, 『文學槪論』, (개문사, 1982년 중판), p.141에서 재인용.

66) 韓榮煥 · 李姓敎, 앞의 책, p.144.

C. 가족들이 이시백의 혼사에 의견이 분분하다.
D. 이득춘은 시백을 데리고 금강산에서 박씨와 혼례를 올린다.
E. 시백과 그의 가족은 신부의 얼굴이 추물임에 실망하여 박씨를 돌보지 않는다.
F. 박씨는 후원에 피화당을 짓고, 홀로 지낸다.
G. 박씨는 부덕과 신묘한 도술의 힘으로 가정을 풍족하게 하고 남편을 장원급제하게 한다.
H. 어느 날 박처사가 찾아와, 액운이 끝났다며 딸의 허물을 벗겨주니 절세미인으로 변한다.
Ⅰ. 절세 미인으로 변신한 박씨와 시백이 드디어 부부지락을 이룬다.
J. 시백이 평안감사로 부임해 선정을 베풀고 병조판서로 승진한다.

A~C는 소설의 서두이다. 활동연대가 인조대왕 시절로, 활동무대는 한양이며 시간과 공간의 배경이 설정되고, 장차 박씨의 배필이 될 남주인공 이시백이 설명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귀하고 영특한 아들 시백을 둔 명문재가의 재상 이득춘은 평수 바둑두기와 퉁소불기에 적수가 없음을 안타깝게 여겼다. 그러던 중에 신선 박처사의 방문으로 즐겁게 소일하다가, 시백을 청하여 본 박처사의 제의로 시백과 박씨의 정혼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주인공인 박씨의 가계나 출생담에 대해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주인공 박씨는 영웅의 일생에서 의례적으로 등장하는 고귀한 혈통의 후손으로 설정되지도 않고, 천상적인 존재의 적강이라는 관습도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이득춘의 집을 방문한 박처사는 금강산에 거처를 둔 도인으로 신비하고 異人적인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박처사는 시백을 청하여 보고 영웅지재의 면모를 발견하자 자신의 딸과 혼인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딸에 대한 박처사의 언급 뿐만 아니라 소설내의 박씨에 대한 묘사가 결혼식이 이루어진 서두에는 일체 서술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오히려 생략을 통해 박씨에 대한 독자의 궁금증을 유발시키며, 또 한편으로는 박씨가 아버지인 박처사처럼 범인이 아닌 특별한 인물로 부각되도록 유

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D~H는 사건이 본격적으로 발전하여 종국에 이르기까지의 전개부로 주인공이 고난을 맞아 극복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이득춘과 이시백은 금강산의 박처사가를 방문하여 혼례를 올리게 된다. 주인공 박씨의 불행은 결혼과 함께 시작되고 있다. 특히 박씨의 추한 외모 때문에 시아버지를 제외한 가족 모두에게 소외당하고 남편에게는 버림받기에 이른다. 이는 결혼 전에 일체 언급이 없었던 박씨의 외모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추모요,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곧 박씨는 추한 외모로 인해 가족에게 버림받게 되고, 자연히 며느리로서 그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게 되자 시어머니의 구박을 받는 한편, 남편의 냉대로 인해 후원 피화당에서 홀로 거처하기에 이른다. 이 파화당이 갖는 의미가 이후 사건 해결에 아주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다시 말해 피화당은 <박씨전>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이어주는 매개체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피화당으로 옮긴 후부터 박씨의 활동은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피화당으로 옮긴 박씨는 자신의 비범성을 보여줌으로써 가족과 화해를 시도하며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으려 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남편이나 시부모에게 일방적으로 수난을 당하는 여성의 모습에서 벗어나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참여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

박씨는 변신하기 전까지 세 가지 사건으로 그의 비범성을 드러낸다.

첫 번째 사건은 시부 이득춘이 벼슬이 높아져 입궐하라는 전교를 갑자기 받고 조복이 마련되지 못해 걱정할 때, 박씨는 그날 밤에 무리 없이 조복을 완성한다. 이 대목은 박씨의 능력이 발휘되는 최초의 사건으로서 의미가 있다. 이는 자신의 비범한 능력을 시부에게 인정받는 한편, 이득춘의 조복을 본 왕까지 박씨의 비범성을 인정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하지만 가족들의 구박은 여전하다. 두 번째 사건은 박씨가 노복을 시켜 비루먹은 말을 삼백냥에 사들이게 한 일이다. 박씨는 비루먹은 말을 3년간 잘 보살핀 후 명나라 황제의 패문칙사에게 삼만냥을 받고 팔게 된다. 그러한 연유로 말이 천리마임을 조선에서는 알아볼 사람이 없고, 나라가 소국이라 명나라 사신에게 팔았음을 밝힘으로써 박씨의 신명함을 보여 주고 있다. 세 번째

사건은 남편인 이시백의 과거응시와 관련된다. 남편이 과거를 보는 전날에 박씨가 일몽을 얻어 백옥연적을 발견하고는 남편에게 쓰도록 함으로써 과거에 급제토록 하여 집안의 경사를 이루게 한 것이다. 이렇듯 역경에 해당하는 사건들이 해결됨으로써 박씨는 회운을 맞이하게 된다.

H는 박씨가 허물을 벗고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는 부분이다. 시집 온지 3년이 지난 후 친정에 온 박씨는 박처사가 전생의 액운이 다했음을 알려줌으로써 탈갑이 이루어진다. 박씨의 추모는 일시적이며 외면적인 것으로 탈갑이라는 도술을 통해서 비로소 완벽한 외모를 갖추게 된다. 따라서 박씨는 얼굴을 비롯하여 모든 신체조건이 완비됨으로써 부덕과 탁월한 능력을 고루 갖춘 가장 이상적인 여인상으로 부각되어 오히려 평범한 시백과 대비된다. 곧 탈갑을 통해 모든 고난이 극복됨으로써 능력이 뛰어난 재질을 지녔던 남편 이시백을 오히려 무능한 존재로 격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

Ⅰ~J는 사건의 갈등이 모두 해결되는 부분으로 박씨 내외가 부귀영화와 영달을 누리게 되는 부분이다. 시백과 박씨 부부의 금슬이 새롭게 깊어지고, 박씨의 내조로 시백은 평안감사에 부임되어 백성을 인의로 다스리니 선정의 결과가 조정에 전해진다. 이처럼 박씨 부부의 화락과 박씨의 내조로 가문의 영달이 극에 달함이 재상가 연회석이나 시백이 평안감사에서 병조판서로 승진 후 잔치를 배설하는 등의 사건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박씨전>의 전반부는 고전소설 구성양식의 전형을 보이며 추녀 박씨를 중심으로 한 도술과 신이성을 보여주는 가정담으로 전기소설적 내용을 담고 있다.[67]

<박씨전>의 후반부 순차적 구조는 다음과 같다.

A. 시백과 임경업이 남경에 사신으로 갔다가 대명을 위해 공을 세운다.

B. 호왕이 조선 침공에 앞서 시백과 경업을 죽이려고 첩자인 기홍대를 보낸다.

C. 박씨는 신통술로 이를 알고 대비해 기홍대를 혼내준다.

---

67) 최경희, 앞의 책, p.46.

D. 박씨가 시백을 통하여 호왕의 침입에 대비하도록 조정에 청했으나, 김자점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E. 시비 계화가 피화당을 찾아온 용울대를 도술로 죽인다.
F. 조선왕의 降書를 받은 용골대가 용울대의 복수를 하려다가 계화에게 패한다.
G. 용골대가 인질을 데리고 회군하다가 의주에서 임경업에게 대패한다.
H. 上 께서 박씨를 충렬부인에 봉하니, 그로부터 이승상 부부의 부귀영화는 그 자손까지 계계승승한다.

후반부에서 가장 큰 사건은 병자호란이다. 앞서 전반부의 가정담에 이어지는 구국담으로서 주인공의 영웅적인 구국활동이 예고되는 과정이다.

A는 갑자년 팔월에 호국이 可達의 亂으로 위급해지자 조선에 구원을 청하기에 이르렀고 어명에 따라 병조판서 이시백이 임경업을 부사로 삼아 군사를 거느리고 위기에 몰린 호국을 구원한다. 이로 인해 이시백과 임경업은 우승상과 부원수로 승진하게 된다. 그러나 그 후 호국은 점점 강성해지면서 오히려 조선을 엿보는 지경에 이른다. '可達의 亂'은 병자호란의 발발에 앞선 사건으로 조선은 명나라의 요청으로 오랑캐를 대파시킬 만큼 막강한 군사력을 갖춘 나라라는 자긍심을 나타내기 위해 꾸며진 가공적 이야기이다. 이는 작품에서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데, 첫째로 임경업은 可達의 亂을 통해 대공을 세우고 그 용맹성으로 호국은 후에 그를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로 조선은 오랑캐를 무찌를 만큼 능력을 갖춘 강국으로 병자호란시 호국에 참패당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당연한 결과가 아님을 강조하고, 또 호국에 대해 정신적으로나마 승리하고자 하는 자존의식이 작용되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B~G는 사건이 본격적인 발전을 이루는 단계로 다수의 실재인물이 전개되고 있다. 북방의 호적이 강해져서 호왕은 마침내 조선을 침략하고자 기회를 노리지만 조선의 神人 박씨와 용장 임경업을 두려워하여 우선 이들을 사전에 처치코자 검술과 미모를 겸비한 기녀 기홍대를 밀파한다. 한편 박씨는 이러한 호왕의 계책을 예견하

여 기홍대를 기다린다. 박씨의 계책으로 피화당에서 독주를 마신 기홍대는 취중에 조선의 신인 곧 박씨를 처치하고자 온 내력과 호국의 침략비밀을 실토하기에 이른다. 잠에서 깬 기홍대는 박씨의 도술에 목숨만 보전하여 호국에 돌아가 사실대로 알린다. 호국이 조선을 침범할 것을 미리 예견한 박씨는 시백에게 알려 왕께 주달하지만 김자점의 반대로 박씨의 뜻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즉 호국이 밀파한 여자객을 물리친 박씨이지만 당시 여성이라는 신분적 제약으로 인해 전란에 대비한 예비책을 마련했음에도 직접 방비를 도모할 수 없었고, 또한 당시의 권세가 김자점에 의해 방비책이 묵살당하여 호국의 침공에 무방비로 있을 수밖에 없는 처지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결국 호국의 침입으로 병자호란의 대참변을 겪게 되는데 이 때부터 박씨의 직접적인 출현과 활약이 드러나게 된다. 곧 호장 용골대, 용울대 형제와 한유가 남한산성을 포위한 후 마침내 용울대는 피화당에 당도하지만 시비 계화와의 대결에서 목숨을 잃게 된다. 한편 남한산성으로 피신한 왕은 국운이 불운함에 이른 것을 애통해 하는데, 현세를 간파한 영의정 최명길의 강화론에 따라 호국에 항복하기에 이른다. 항복을 받은 용골대는 아우 용울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다. 그 소식에 격분한 용골대는 군사를 재촉하여 박씨의 거처인 피화당에 달려가 동생의 원수를 갚고자 한다. 용골대와 피화당의 보이지 않는 박씨와의 팽팽한 대결은 그 절정을 이루지만 용골대는 도술이라는 신기묘법을 당해내지 못한다. 곧 호장 용골대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피화당의 주인인 박씨와 대결이 안됨을 깨닫고, 왕비 및 세자대군과 수탐한 물건 등을 거두어 퇴군함에 이른다. 하지만 박씨는 도술로써 인질인 왕비를 구출하고, 용골대에게 의주로 돌아서 임장군을 보고 가라는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그리고 임경업이 이들을 대파시켜 숨은 용맹성을 발휘하게 하나 결국 강화에 따라 호장을 살려 보낸다.

이처럼 후반부는 여러 군담소설과 같이 주인공의 비상한 도술이 주무기로 사용되어서 호장 용골대를 무릎꿇게 한 뒤 왕비를 인질에서 구출하고 또 회군하는 적들을 대파케 하는 묘책으로 임경업의 용맹성을 실현시킴으로써, 사건을 종결하고

있다. 비록 병자호란에 패하여 조정에서는 강화를 수락하였지만 박씨의 영웅적 활약으로 무너진 국권을 회복하게 된다. 또 신인 박씨와 임경업의 지략과 용맹에는 결국 호국이 당하지 못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H는 <박씨전> 전체의 결말로써 모든 사건이 종결되어 작품의 전체적 의의를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 박씨는 왕으로부터 그 덕행과 충효 및 규중에서 나라의 위엄을 되찾고 왕비의 위태함을 구했음을 칭송받아 충렬부인에 봉해진다. 이처럼 뛰어난 재질과 덕행으로 남편을 위하고 국난을 극복한 영웅적 행적은 결과적으로 가문의 부귀영화를 가져왔다는 것으로 이 소설은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다.

이상으로 <박씨전>의 줄거리를 중심으로 그 구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 작품의 중심이 되는 구조적 골격을 살펴보면 박씨와 이시백과의 결혼, 박씨의 변신, 호군 퇴치 등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한편, <박씨전>이 전 · 후반부의 이질적 이야기가 부자연스럽게 결합된 작품이라는 의견[68]이 있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첫째, <박씨전>에서 나타나는 전 · 후반의 갈등 모두는 박씨의 뛰어난 능력으로 해소되고 있다는 점이다. 얼핏 보기에는 전 · 후반부가 서로 이질적인 스토리의 전개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박씨전>의 작품 전체의 줄거리는 남성을 능가하는 박씨의 활약상이다. 즉 박씨는 가정 내에서 뿐만 아니라, 남성의 전유물이던 국사에까지 관여하여 국가적 위기의 해결 주체로까지 등장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점이 이질적인 전 · 후반부의 스토리를 유기적으로 연결시키고 있고, 작품의 주제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둘째, 작품의 후반부는 국가적 위기인 병자호란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는데, 전반부에서 이미 박씨는 이를 예견하여 대비한다. 앞부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박씨는 이미 소설의 전반부에서 '피화당'을 짓고, 사방에 흙을 돋우고 각색 나무를 심어 닥쳐올 戰亂에 대비하고 있다. 이는 작품의 내용면에서도 어느 정도 유기적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전반부의 가정 내에서 보여주었던 박씨의 비범한 능력은 후반부에서 닥쳐

68) 성현경, 사재동, 이윤석, 앞의 책.

올 병자호란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전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즉 가정 내의 갈등을 해결한 박씨의 능력은 오히려 후반부에서 극대화되어 발휘된다.

이상에서 볼때 논자는 <박씨전>이 전 · 후반의 이질적 이야기의 결합이 아니라, 그 자체로써 독자적이며 유기적 구조를 갖춘 작품으로 상정하고 작품 분석을 전개하고자 하였다.

위에서 살펴보았던 박씨전의 전개 양상을 보면 <박씨전>은 능력이 뛰어나지만 외모가 추한 한 여인이 남편과 화합하지 못하는 시련의 기간 동안 능력을 드러내고, 탈갑 이후에는 남편과 화합함으로써 가정적 갈등은 해소된다. 그 후 병자호란이 일어나 갈등은 국가적 차원으로 확대되고, 국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박씨의 능력은 극대화되어 마침내는 임금과 조정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2. 가정 내외의 갈등 구조

위의 전개 양상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처럼 박씨는 가정 안과 밖에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곧 가정 안과 밖에 박씨와 갈등하고 있는 사건이 존재함을 의미하는 데 하나는 자신의 추모로 인해 갈등하는 가정 내 갈등과 다른 하나는 호란으로 인한 호국과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갈등을 가정 내 갈등과 국가적 갈등으로 나누어 갈등의 원인과 해결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가정 내 갈등

가정 내 주된 갈등은 남편 시백과 박씨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갈등의 주된 원인은 박씨의 지독히 추한 외모에서 연유하고 있으므로 두 사람의 갈등은 혼인을 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시백과 박씨의 결혼 과정은 이득춘과 박처사의 만남에서 시작한다. 바둑두기와 옥저불기를 좋아하는 이득춘은 박처사의 바둑두는 솜씨와 옥저부는 솜씨에 놀라워하며, 박처사가 異人임을 짐작한다. 이득춘의 집에서 며칠 머무는 동안 박처사는 시백을 불러 그 영웅됨의 모습을 보고 즉시 청혼한다. 박처사가 이인임을 지감한 이득춘은 딸 역시 범연하리라는 짐작으로 일방적으로 청혼을 받아들이게 된다.

여기서 이들의 결연 방식은 당대의 혼인 관습에 비추어 특이성이 나타난다. 그 중 하나는 신분이 다른 가문끼리의 결연이라는 점이다. 시백은 명문가 재상의 후예인데 반해, 박씨는 근원을 알 수 없는 빈한한 산림처사의 딸이다. 비록 박씨가 금강산에 은거하는 도사의 딸이기는 하지만 그의 혈통은 명확하지 않다. 물론 혼인 당사자의 인물됨이나 양가 가장이 친면이 있을 경우는 언약만으로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媒人이 드는 것이 사대부 가문 혼사의 常禮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의 사회가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제도라고 하지만 혼사 문제만은 모친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기 마련인데, 시백의 모친은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며느리를 맞고 있다는 점에서도 상식적인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69]

다른 하나는 별 인연이 없는 낯선 부친 사이의 일방적인 약속이라는 점이다.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이득춘은 다만 박처사의 옥저불기와 바둑솜씨에 감복하여 그를 선인이라 짐작하고 결혼을 승낙하고 있다. 득춘이 박처사의 딸과 정혼했음을 가족에게 알릴 때, 가족 모두가 이의를 제기한 부분을 보아서도 이들의 정혼이 당대 사회의 보편적 가치 기준으로 볼 때 파격적이라는 사실임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잇ᄭᅥᆫ 상공이 제족를 모와 쳐ᄉᆞ에 녀식과 졍혼ᄒᆞᆫ 일을 셜화ᄒᆞ니, 부인과 제죡이 의아ᄒᆞ여 왈
>
> "혼인ᄂᆞᆫ 일윤ᄃᆡᄉᆞ라. 읏지 ᄌᆡ상가에셔 그 사ᄅᆞᆷ에 근본과 출쳐도 몰을 ᄲᅮᆫ더러 제죡도 모로계 경숄히 허락ᄒᆞ여 계신잇가?"ᄒᆞ며 의론이 분분ᄒᆞ거날(16)

69) 정상진, 「中心人物으로 본 朴氏傳의 構造와 그 意味」, 『한국문학논총』8 · 9합집, (한국문학회, 1993).

또한 특이한 것은 정혼의 말이 오가는 내내 박씨의 가계나 출생담에 대한 설명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만 아버지 박처사의 위인됨이나 재주로 딸인 박씨 또한 재덕을 갖춘 인물일 것이라는 정도의 추측만 가능할 뿐이다. 앞에서 언급되었듯 <박씨전>에서는 고소설의 주인공에게 영웅의 일생에서 의례적으로 등장하는 고귀한 혈통의 후손으로 설정되지도 않았고, 천상적 존재의 謫降이라는 관습도 나타나지 않았다. 박씨를 천상선계가 적강한 인물로 설명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이는 후대적인 변모일 가능성이 많다.[70]

박씨의 외모는 결혼하고서야 비로소 알려지게 된다.

> 간신히 쥬뎜을 ᄎᆞ져 드러가 공과 시빅과 신뷔 삼인이 ᄒᆞᆫ방에 들ᄉᆡ, 신뷔 얼골 갈리왓든 나ᄉᆞᆷ을 버셧거날, 그졔야 공과 시빅이 신부의 얼골을 ᄌᆞ셔히 보니, 모양은 고ᄉᆞᄒᆞ고 얼골리 검고 얼근 즁의 츄비ᄒᆞᆫ ᄯᅳᆫ 쥴쥴리 ᄆᆡᆺ쳐 얼근 궁계 가득ᄒᆞ며, 눈ᄂᆞᆫ 달핑이 구멍ᄀᆞᆺ고, 코ᄂᆞᆫ 심산궁곡에 험헌 바회 갓트며, 이마ᄂᆞᆫ 널계 버셔져 남극로인셩에 이마 ᄀᆞᆺ고, 키ᄂᆞᆫ 팔쳑장신이며, 한 팔은 틀이고 한 다리ᄂᆞᆫ 져ᄂᆞᆫ 모양 ᄀᆞᆺ트니, 참아 이런 인물은 두 번 보지 못헐너라. 공과 시빅이 ᄒᆞᆫ번 보ᄆᆡ 졍신이 비월ᄒᆞ야 다시 ᄃᆡ면ᄒᆞᆯ 마음이 업셔, 그러져렁 밤을 ᄉᆡ고(25~26)

박씨는 추한 외모로 인해 결혼 첫날밤부터 남편에게 소박을 맞을 뿐 아니라, 시댁 식구와 비복들에게까지 냉대와 멸시를 받는다. 다만 媤父만이 박씨를 이해해주고,

> 사ᄅᆞᆷ이 덕힝를 모로고 미식을 취ᄒᆞ면 필경에 ᄑᆡ가지본이라. 내 드른니 너에 ᄂᆡ외 화락지 못ᄒᆞ다 ᄒᆞᆫ즉, 그러ᄒᆞ고 엇지 슈신졔가를 아잔 말가.…(中略)내가 츙의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을 박ᄃᆡᄒᆞ면 이ᄂᆞᆫ 부모를 바림이니, 엇지 부모를 힝ᄒᆞᄂᆞᆫ ᄇᆡ리오. 그런고로 인륜을 ᄑᆡ상ᄒᆞᄂᆞᆫ 근본이니, 부ᄃᆡ 각별죠심ᄒᆞ여 녯법을 어귀지 말나.(28)

---

70) 김대숙, 앞의 책, p.170.

라고 시백을 꾸짖으며 박씨를 감싸준다.

그러나 시백은 여성이 지닌 덕성과 재질 따위는 무시하고 외모가 추하다는 이유로 괄시하였기에 부친으로부터 꾸중을 듣게 되어, 자신의 갈등은 심화되지만 결코 깨닫지 못한다. 이는 당대 사회가 표면적으로는 여성의 재질이나 부덕을 제일의 미덕으로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여성의 외모를 중시하는 남성들의 이중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생활이 계속되자 결국 박씨가 찾아낸 방안은 피화당에서의 별거이다. 물론 피화당은 그 명칭이 말해주듯이 박씨 부인이 자신의 초인적 능력으로 국가의 위기를 예감하고 그 방비책으로 지은 것이다. 하지만 피화당은 화를 피한다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피화당에서의 탈갑 행위는 한 양반 가문의 명실상부한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거듭나기 위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남편과의 불화를 화해도구로 이끌기 위한 박씨 부인의 의지를 보여준 의도적 장치라고 하겠다.

> 박복ᄒᆞ온 인물과 모양이 비록 츄비ᄒᆞ와 부모님ᄭᅴ 효셩도 못ᄒᆞ옵고 부부간 화락도 못ᄒᆞ오며, 가ᄂᆡ화목도 못ᄒᆞ오니, 가히 무용지물이라. 업ᄂᆞᆫ ᄌᆞ식으로 알으시고 후원의 쵸당 슈간만 지어쥬시면, 죡히 슈회를 풀가 하ᄂᆞ이다.(30)

박씨는 초당에 시비 계화만을 데리고 獨居하게 되는데 이 초당에 기거하면서부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 그 첫 번째 사건으로 하룻밤 사이에 媤父의 朝服을 완성하는 것이다. 박씨의 조력자로 활동하는 媤父가 一品 벼슬에 올라 내일 당장 조복을 입고 입궐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박씨 부인은 자신이 조복을 짓겠다고 나선다. 박씨 부인이 조복을 지을 옷감을 달라고 하자, 박씨의 시어머니와 다른 사람들은 비웃기만 한다. 그러나 시부는 박씨가 비상한 재주가 있음을 알고 옷감과 조역 할 사람을 들여보내니 그녀의 비범한 솜씨가 드러나게 된다. 또한 봉황수를 표현해 국왕에게 전달하여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데, 이는

가정 내에서의 갈등을 절대자인 국왕의 힘까지 빌려 해결하고자 한 노력의 일단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이 일을 계기로 시백과 집안사람들은 박씨를 대하는 태도가 전보다는 덜하지만 남편과는 불화의 근본적인 추모가 해결되지 않았으므로 갈등의 근본적인 해결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박씨의 비범성이 발휘되는 두 번째 사건은 비루먹은 말을 삼백냥에 사와 삼만냥에 팔아 가정 경제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것은 박씨에게 말을 알아 보는 鑑識力이 있음을 드러내어 능력을 인정 받으려는 2차적 화해소이다. 이 대목은『三國史記』권45 열전에 있는 온달 설화와 흡사하다고 앞에서도 언급하였다. 박씨는 “가산이 넉넉지 못ᄒᆞ온이 성ᄌᆡ할 도리를 ᄒᆞ오미 됴할 듯ᄒᆞ오이다”라고 하면서 경제적 사정을 들어서 말 구입의 필요성을 내세우지만 시부의 벼슬이 우의정인 것을 감안한다면, 실질적인 가산 증식이 목적이 아니라 박씨가 천리마를 알아보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온달설화를 변이시켜 첨가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곧 박씨의 능력을 인정받게 할 목적으로 한 단편적 화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포함한 가족들은 여전히 박씨를 인정하지 않는다. 결국 가족의 인정을 받으려고 한 두 번째 노력도 수포로 돌아간다.

얼마 후 박씨의 능력을 결정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사건이 일어난다. 박씨는 남편의 박대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급제를 위해 결정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남편과의 애정은 물론, 가족들에게도 인정받기 위해 꿈에 본 신기한 연적을 남편에게 준다. 그런데도 시백은 전혀 반가워하지도 고마워하지도 않는다. 박씨 부인이 계화로 하여금 시백을 보기를 청했을 때 시백은 장부의 일에 아녀자가 나서는 것조차 불쾌하게 여긴다. 이시백의 과거급제에 공헌을 하고 남편의 애정과 가족들의 인정을 기대했던 박씨의 세 번째 노력도 결국은 수포로 돌아가고 만 것이다. 이는 시백의 과거급제를 축하하는 잔치에 일등공신인 박씨만 참석하지 못한 채 피화당에 홀로 있는 대목을 볼 수 있다.

계화 박씨에 외로히 안지물 강기히 녁여 부인씌 엿ᄌᆞ오ᄃᆡ
“이 ᄉᆞ이 경ᄉᆞ를 보시고 누일 ᄃᆡ연을 비셜ᄒᆞ야 고구 친쳑 상하 업시 질겨ᄒᆞ옵ᄂᆞᆫᄃᆡ 홀노 박씨ᄂᆞᆫ 참례도 못ᄒᆞ시옵고 젹막히 계시니 보옵기에 비창허올 ᄲᅮᆫ외라, 쥬야 슈심으로 셰월을 보ᄂᆡ옵시니 쇼비 ᄀᆞᆺ튼 하졍의도 오히려 미안ᄒᆞ여이다.”
ᄒᆞ거날, 박씨 텬연히 갈오ᄃᆡ
“사ᄅᆞᆷ에 팔ᄌᆞ 길흉화복은 하날에 잇스니 무삼 셔름이 잇스며 무삼 분험이 잇스리요.”(56)

박씨가 시비 계화만을 데리고 피화당에서 지낸 지 3년이 지났을 때, 부친인 박처사가 찾아와 그 딸을 불러 “네 이졔ᄂᆞᆫ 익운이 진ᄒᆞ엿시니 허물을 곳치라”하니, 박씨가 대답하고 피화당으로 들어가 그날 밤 목욕재계한 후 허물을 벗고 절세의 미인이 된다. 박씨가 미인으로 변하자 그때까지도 박씨의 재질과 능력을 알아보지 못한 시백은 자신을 책하며 후회한다. 그런데 탈갑한 후 박씨는 그 동안의 시백의 박대와 홀시에 대한 반발에서 수일간 함구무언하고, 시백은 박씨에 대한 사모의 정으로 병이 날 지경에 이른다.

(박씨 왈)“우리 죠션ᄂᆞᆫ 례의지국이라 ᄒᆞ엿스니, 엇진 일노 오륜과 례의를 모로ᄂᆞᆫ요. 그ᄃᆡ 안히 박식이라 ᄒᆞ여 삼ᄉᆞ년을 쳔ᄃᆡᄒᆞ엿스니, 부부유별은 어ᄃᆡ 잇스며, 슈신졔가를 엇지 알이요…중략…지식이 져리 업슬진ᄃᆡᆫ 효졔츙신 어이 알며, 졔셰치민 엇지 알이잇가. ᄎᆞ후ᄂᆞᆫ 효도를 다ᄒᆞ여 츙셩을 다 못허올 듯ᄒᆞ오니 날 ᄀᆞᆺ튼 안녀ᄌᆞ에 마음으로도 그ᄃᆡ 갓튼 장부ᄂᆞᆫ 불러 안니ᄒᆞᄂᆞ이다.” ᄒᆞ며 언ᄒᆞ가 졍즉ᄒᆞ계 심칙ᄒᆞ니 시빅이 드르ᄆᆡ ᄌᆞ작지얼을 심량ᄒᆞ고 유구무언이라.(68)

결국 시백은 박씨의 아량으로 부부지락을 이루게 되니, 오랜 동안의 별거가 박씨의 변신으로 인해 해소되어 부부 간의 갈등은 극복된다. 또한 가족과 노복들도 그 동안의 박대함을 뉘우치게 되니, 이로써 남편을 비롯한 모든 가족들이 박씨를 인정하여 박씨는 참된 의미에서 가족의 일원이 된다.

가족의 일원이 된 박씨는 대외적인 인정이 필요했다. 박씨의 변신이 알려지자 일

가 친척과 재상가 부인들이 박씨를 초대한다. 박씨는 그 부인들 앞에서 월궁소산의 화렴단, 월궁소산의 패월단, 굴잔을 가로막은 금봉차 등의 신기함을 나타내 보이니 부인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칭찬하였다. 박씨는 이로써 완전히 대외 · 대내적으로 새롭게 받아들여지고 아내로서, 가족의 일원으로서, 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었다.

다른 영웅소설이나 여성을 주인공으로 하는 작품과는 달리 <박씨전>의 박씨는 그의 용모가 추함에서 시련을 겪는다. 박씨의 추모는 영웅들이 겪어야 하는 외적인 고통이나 핍박으로 여자로서 당하는 고통 중에서도 극도의 시련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고소설의 여주인공은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고소설에서 추녀가 등장하는 것은 계모형 악처인 경우가 대부분이지 박씨와 같이 현숙한 주인공인 경우는 아주 예외적이다. 이는 박씨의 변신을 전제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추모로 인해 인정받지 못했던 능력이 변신으로 인해 가족들에게 인정받을 때 그 인정을 배가 시켜주게 된다. 이렇듯 박씨의 변신은 가정적 갈등의 해소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사건이다. 그렇다면 변신이 작품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닌 것이기에 작품 속에 설정한 것인지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변신 모티프는 신화적인 주제로서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신화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모티프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 주인공에서 신성성을 부여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등장하는 초자연적인 모티프이다. 전생의 죄 혹은 액운으로 말미암아 추한 모습으로 고난을 겪다가 허물을 벗고 미녀로 변신하는 설화는 많이 찾아볼 수 있거니와, 변신은 작품마다 그 동기나 이유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

<박씨전>의 변신 모티프는 다분히 개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변신으로 인해 박씨와 시백, 박씨와 가족간의 갈등은 말끔히 해소되고 <박씨전>의 일차적인 가정 내에서의 고난은 청산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주인공 박씨는 자신의 추한 외모로 가정불화가 계속되고 심화될 조짐이 보이자 재덕과 도술, 초인적 능력을 통하여 풀어보려고 하지만, 갈등의 근본적인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박씨가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을 제거하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타고난 추모는 여성 자체의 결함임으로 이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이다. 박씨의 미모로의 변신은 이러한 갈등을 일시에 해소시켜 줄 수 있는 획기적인 사건이다. 박씨의 비범한 능력과 박씨의 용모는 상반되는 요소처럼 보이는데, 이는 선인의 모습을 한 여인이 소지했을법한 자질과 능력이 추한 용모 속에 감추어 있음으로 해서 박씨의 탈갑은 더욱 극적인 효과를 준다.

여기에 박씨의 변신의 의미가 있다. 박씨의 외모가 추한 것은 그가 지닌 남다른 능력에 반대되는, 즉 상대적인 요소이다. 말하자면 영웅소설 주인공이 지니는 영웅성의 상대적 조건, 즉 현실적 제약이나 난관과 같은 것이다. 박씨는 유별난 추모로서 평범한 인물들 사이에서 분리되어 예외자적인 개별성을 가지는 것이다. 물론 박씨가 고난의 기간 동안에 아무리 신이한 능력을 발휘했다고 하더라도 탈갑하지 못하였다면 갈등은 해소되지 않았을 것이다. 즉 그녀의 약점은 자신의 재능(영웅성)을 드러내기 위한 상보적인 장치인 것이다. 남편으로부터 소박받고 버려진 상황이고, 그토록 가혹한 제약을 지닌 존재이면서 발휘하는 재주는 그녀가 지닌 힘을 더욱 증폭시키는 것이다.[71] 박씨가 변신 전에 보인 智略과 智謀의 비범함은 非可視的이며, 따라서 잠재상태로 남아 있다가 허물을 벗음으로써 잠재상태가 실현태로 드러나게 되는 이른바 '逸脫과정'으로 박씨의 용모 변화는 그녀가 지닌 비범한 자질이 완성되는 것이다. 즉 박씨의 변신은 박씨의 비범성의 완전한 성취[72]인 것이다. 남편을 비롯한 주위 사람들의 냉대와 멸시에도 불구하고 박씨는 부덕과 지혜를 발휘하며 액운을 벗어날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변신을 전후로 박씨의 능력이 배가되거나 없었던 능력이 새로 생긴 것이 아니다. 박씨는 탈갑 후 소지했던 능력의 정도에는 변함이 없이 외모만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즉 박씨의 능력은 生來的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박씨가 구원자를 통해 능력을 전수받는다든지, 보조도구를 획득함으로써 능력이 배가된다든지 하는 언급

71) 김대숙, 앞의 책, p.171.

72) 전준걸, 『朝鮮朝 小說의 武藝意識과 龍宮說話』, (아세아문화사, 1992), pp.84-86.

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박씨의 비범성이 습득된 것이 아니라 생래적인 능력임을 짐작하게 하는 것은 인물의 신이성이나 영웅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타나기 마련인 태몽 모티프나 天上인물의 下降 모티프 등이 <박씨전>에서 찾아볼 수 없고, 그의 영웅적 능력을 암시하기 위한 복선 같은 것도 나타나 있지 않는 것이다. 다만 박씨가 금강산에 은거하는 박처사의 딸로 태어나 용모는 박색이나 평범한 자질의 소유자가 아님을 추측할 수 있다.

박씨의 추모로 발생한 가정적 갈등은 박씨의 탈갑으로 해소된다. 박씨는 자신의 용모 때문에 시부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로부터의 멸시와 박대를 참으며, 오히려 남편과 시가를 위해 자신의 비범한 능력을 사용하여 이들을 돕는다. 자신의 재질이나 능력으로는 가족과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이다. 여기서 박씨의 흉한 용모는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변신이라는 비현실적 과정을 통해 해결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시에 외모 때문에 남편으로부터 구박과 냉대를 받은 여성이 있었고, 남성에게 여성의 외모가 중시되었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국가적 갈등

가정 내에서의 갈등이 해소되자, 이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병자호란이 발발하여 조선과 호국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다. 이는 정확히 보면 박씨와 호국과의 갈등이라 할 수 있다. 첫 번째 갈등은 박씨와 호국의 자객 '기홍대'와의 대결에서 일어나고, 두 번째는 피화당을 침입한 호국의 장수 용골대 형제와 박씨의 대결에서 나타난다.

국가적 차원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갈등은 박씨와 기홍대 사이의 대결이다. 북방의 호적은 강성해져 조선의 침략을 엿보지만 여의치가 않다. 그것은 호국을 침공한 가달을 무찔러 나라를 구해준 임경업이 있기 때문이다. 이시백을 上司로, 임경업을 副詞로 명나라에 갔을 때, 황제의 요청으로 호국에 청병장으로 가서 가달의 난을 평정하여 호국을 구해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임경업의 용맹을 알게 되었다. 더구나 그가 조선의 북방을 굳건히 지키고 있기에 호국은 조선의 神人과 임경업을 처치하

여 침략을 용이하게 하고자 胡王妃의 계책으로 자객 기홍대를 조선에 보내게 된다. 胡王妃의 권유로 자객으로 뽑힌 기홍대 역시 일대 여걸이다. 그러나 박씨는 이러한 胡王의 계략을 예견하여 시백에게 알려주고 기홍대를 기다린다.

기홍대는 기생 '셜중매'로 가장하고 시백의 집을 찾아오지만 박씨와의 대결에서는 적수가 될 수 없었다. 박씨가 기홍대를 피화당으로 유인한 뒤 준비해 둔 독주를 마시게 한 뒤 비연도로 꼼짝 못하게 하였으니 기홍대는 자신이 밀파된 내력과 胡王의 흉계를 실토하며 목숨을 애걸한다.

> (박씨 왈)이 ᄀᆡ 갓튼 오랑ᄏᆡ년아 네 내 말을 명심ᄒᆞ여 드러보라. 우리 ᄃᆡ감ᄭᆡ서 왕명을 밧ᄌᆞ와 아국장ᄉᆞ 임경업을 다리고 남경ᄉᆞ신을 드러갓든니, 맛ᄎᆞᆷ 너의 나라에서 춍마가 달에 난을 만나 ᄑᆡ망디경이 된 고로 셰력이 핍진ᄒᆞ야 ᄃᆡ국ᄭᆡ지 청병ᄒᆞ엿기로…중략… 그 은혜를 갑ᄌᆞ ᄒᆞ면 ᄃᆡ산이 가부얍고 바다가 얏흘 터이어날, 보은ᄂᆞᆫ 도로혀 ᄇᆡ은망덕ᄒᆞ고 너 ᄀᆞᆺ튼 요물을 보ᄂᆡ여 우리나라를 탐쇽코져 ᄒᆞ야 당도리 내계 먼져 와 나를 ᄒᆡ하랴 ᄒᆞ고 ᄌᆡ죠를 시험코ᄌᆞ ᄒᆞ니 젼후죄를 ᄉᆡᆼ각ᄒᆞ면 너를 쥭여도 죄가 남을 지라…중략…ᄂᆡ의 통분험과 네 왕에 쇼위를 ᄉᆡᆼ각ᄒᆞ면 네 목을 당장 베혀 분심을 덜 거시로되, 인명을 살ᄒᆡᄒᆞ미 상ᄉᆞ가 아니라. 또 네 왕은 근본 무도ᄒᆞ여 이ᄀᆞᆺ튼 ᄯᆞᆺ즐 곳치지 안니헐 듯ᄒᆞ기로, 너 ᄀᆞᆺ튼 미물을 아즉 살여 돌여보ᄂᆡ니, 도라가 네 왕에게 나의 ᄒᆞ든 말을 ᄌᆞ셔히 젼ᄒᆞ라. 우리 죠션이 비록 쇼국이나 인ᄌᆡ를 쓰량이면 영웅 명장이 구산갓치 ᄊᆞ이여 그 슈를 아지 못ᄒᆞ고 날 갓튼 용둔한 ᄌᆡ죠ᄂᆞᆫ 거ᄌᆡ두량이라…중략…내가 비록 녀ᄌᆞ나 영웅호걸을 모흐고 군ᄉᆞ를 일워 너의 나라에 드라가ᄂᆞᆫ 날이면 무죄ᄒᆞᆫ 츙효군ᄌᆞ와 여러 ᄇᆡᆨ셩을 씨도 업시ᄒᆞᆯ 거시니, 부ᄃᆡ 텬명을 어긔지 말고 슌죵ᄒᆞ계 ᄒᆞ라(100~102)

위의 박씨와 기홍대와의 대결은 병자호란에 앞서 벌어진 사건이며, 장차의 胡將 용골대 형제와의 대결을 위한 전초적 성격을 띤다. 여기에서 두 가지 생각해야 할 점은 작품 속의 '가달의 난' 대목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는 점과 박씨와 기홍대의 대결을 설정한 점에 대해서다. 이것이 작품 속에 형상화된 까닭과 작품 내의 사건 전개에 지니는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가달의 난'은 사실이 아닌 허구적 전쟁이다. 이시백과 임경업은 역사적으로

실재한 인물이지만 이들이 명나라에 가서 청병장이 되어 가달을 물리쳐 호국을 도운 사실이 없다. 이시백은 명나라에 사신을 간 일이 없었고, 청나라에 사신을 간 일은 있었다. 그리고 임경업도 군관으로 사신을 따라 명나라에 간 일이 없었다. 임경업의 年譜에도 이런 기록은 전혀 없다.[73] 그리고 이 사건만 본다면, 박씨가 이시백과 임경업이 가달과 싸움을 하는데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없으며, 분량만 보더라도 전체에서 얼마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가달의 난'을 평정한 대목이 작품에서 어떤 의미로 작용하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가달의 난'은 조선이 호국을 위태롭게 한 강력한 가달을 물리칠 정도의 군사력을 갖춘 나라임을 의미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병자호란에서 호국에게 무참히 패한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기는 하지만 필연적 귀결은 아니라는 자존심이 깔려 있다. 무엇보다도 호국이 제나라를 구해준 은혜를 저버리고 조선을 침탈하여 降書를 받아낸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을 나타내고 싶었던 것이다. 이 사건은 장차 호국과의 전쟁을 예고하며 조선의 은혜를 입은 호국이 오히려 조선을 침략하여 민중으로 하여금 배은망덕에 대한 거친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소설적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박씨와 기홍대와의 대결의 의미이다. 호국은 조선을 쉽게 침공하기 위해서는 조선의 神人과 임경업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것을 안 사람이 호국의 王妃이고, 자객 기홍대를 밀파한 것도 胡王妃이다. 胡王이 조선을 침탈하려는 야심을 가지고 王妃와 의논한 끝에 기홍대라는 여자를 침투시킨다. 호왕비는 자기가 목표로 하는 사람 즉 神人이 남자라고 생각하고 "죠션은 호색지국"이므로 才色을 갖춘 기홍대를 보낸 것이다. 그러나 박씨는 상대가 여자이고, 기홍대라는 것까지 이미 알고 남편에게 그 대책을 일러 놓지만, 기홍대는 물론이고 胡王妃 또한 적을 자세히 몰랐으니 이러한 점에서 박씨는 胡王妃보다 우위에 있고, 이것은 바로 민족의 자존심과 상통한다.[74] 즉 박씨와 기홍대의 대결은 곧 박씨와 호국의

73) 이윤석, 앞의 책.

74) 김미란, 앞의 책, p.51.

王妃와의 대결에 다름 아니며, 이는 민족적 우위를 표현하려는 의도에서 설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기홍대를 퇴치한 후, 박씨는 장차의 병자호란을 예견하고 이를 한탄하며, 임금께 호국의 침범에 대한 방비를 할 수 있도록 남편으로 하여금 전달케한다. 이에 박씨의 비범함을 알고 있는 임금이 호국을 경계할 것을 지시하지만, 김자점의 반대에 부딪힌다. 결국 박씨의 충의는 좌절되고, 결과적으로 병자호란의 國恥를 겪게 된다. 이는 현 정세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집권 사대부층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주며 비판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 침략의 야욕을 버리지 못한 胡王은 용골대 형제로 하여금 십만 대병을 이끌고 조선을 침략케 한다.

> 홀연 동ᄃᆡ문으로서 방포일셩의 고각함셩이 텬디에 진동ᄒᆞ더니, 무슈ᄒᆞᆫ 호병이 동문을 ᄭᆡ치고 드러오ᄂᆞᆫ데, 긔치창검은 일ᄉᆡᆨ이 무광ᄒᆞ며 살벌지셩이 셩즁에 가득ᄒᆞ니, ᄇᆡᆨ셩이 불의지변을 만나 ᄉᆞ산분쥬 ᄒᆞᄂᆞᆫ지라(112~114)

물론 이들과의 싸움에서 조선은 대패하여 降書를 올리게 된다. 역사적 사실은 이렇게 참담한 패배를 면치 못했던 것이다. 이것이 작품 내면에 짙게 깔린 작품적 정서임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작품에서는 박씨가 호적을 통쾌하게 물리치며, 그 결과 박씨의 영웅적 위상이 한껏 고조된다. 용울대와의 싸움에서 박씨는 시비 계화로 하여금 용울대의 머리를 베어 나무에 걸어 두게 한다. 용울대는 박씨의 도술 앞에서 변변히 싸워 보지도 못하고 목숨을 잃고 만다. 한편 남한산성에서 이미 조선왕으로부터 항복을 받고 돌아온 용골대는 아우의 죽음을 보고 憤氣大發하여 피화당을 공격한다. 이제 박씨는 호장 용골대와 싸움을 벌이게 되고, 이 싸움은 상당히 격렬하고 집요하게 전개된다.

(용골대 왈)“네 죄를 속ᄒᆞ라.”ᄒᆞᆫᄃᆡ 계화 그 말을 드른 체도 아니ᄒᆞ고 울ᄃᆡ의 머리만 ᄌᆞ로 칼로쳐 쵸롱ᄒᆞ여 왈 “나ᄂᆞᆫ 박부인에 시비 계화언이와 너를 ᄉᆡᆼ각ᄒᆞ니 가히 가련ᄒᆞ고 녹녹ᄒᆞ도다. 네 동ᄉᆡᆼ 울ᄃᆡᄂᆞᆫ 날ᄀᆞᆺ튼 잔약ᄒᆞᆫ 녀ᄌᆞ 숀에 죽었ᄂᆞᆫᄃᆡ, 너도 날을 제어치 못ᄒᆞ고 져닷지 분ᄒᆡᄒᆞ니, 엇지 가긍치 안이 ᄒᆞ며 어이 녹녹지 안니헐랴.”(210쪽)

모욕하는 계화의 말에 분을 이기지 못해 용골대는 수만 군사로 하여금 활을 쏘게 하였지만, 하나도 맞히는 자가 없고 화살만 중간에 허비함을 보자 김자점을 불러 군사를 모아 피화당을 공격한다.

너의 인제는 ᄂᆡ 나라의 신하라. ᄂᆡ 영을 엇지 어긔리요. ᄌᆞ졈이 황공ᄃᆡ왈, 분부ᄃᆡ로 거힝ᄒᆞ오리다. 용골ᄃᆡ 호령ᄒᆞ여 왈, 네 군ᄉᆞ를 모라 박부인과 계화를 ᄉᆡᆼ금ᄒᆞ여 드리라 하니, ᄌᆞ졈이 황거ᄒᆞ여 방포일셩의 군ᄉᆞ를 모라 피화당을 에워ᄊᆞ니……군ᄉᆞ로 하여곰 각각 불을 지르고, 너의 물이 아모리 쳔변만화지슐이 잇슨들 엇지ᄒᆞ리요 ᄒᆞ고, 군ᄉᆞ를 호령ᄒᆞ여 일시에 불을 노으니, 그 불이 화약 염초를 범ᄒᆞᄆᆡ, 벽녁 갓튼 소ᄅᆡ ᄂᆞ며 장안 ᄉᆞᆷ십리의 화광이 츙쳔ᄒᆞ여 죽는 ᄌᆡ 뮤슈ᄒᆞ드니 (210)

용골대는 피화당을 에워싸고 불을 놓기도 하고, 김자점에게 명령을 내려 화약염초를 묻고 화공을 전개하기도 한다. 병자호란은 민생을 돌보고 국방에 힘써야 하는 지배층의 잘못으로 외적의 침입을 받아 패한 전쟁인데, 여기서는 도리어 피화당에서 동족끼리의 싸움으로 치닫게 하여 민족의 비극을 극대화하고 위정자에 대한 아이러니로 발전하고 있다.

“당쵸 긔병헐 제 우리 왕비 분부ᄒᆞ되 장안에 신인이 잇슬 거시니, 리시빅의 후원ᄂᆞᆫ 범치 말나 ᄒᆞ시더니, 과연 그 말리 허언이 안니요 진담이로다. 아모리 ᄉᆡᆼ각ᄒᆞ여도 ᄋᆡ걸ᄒᆞᄂᆞ이만 못ᄒᆞ도다.” ᄒᆞ고 호장이 갑옷슬 벗고 창검을 다 바린 후 팔문금ᄉᆞ진 압혜 나아가 례좌ᄒᆞ고 ᄋᆡ걸 왈, “죠션텬디의 도모지 무롭풀 쑬 데 업더니, 박부인 뎐에 쑬이ᄂᆞ이다.” ᄒᆞ고 무슈히 ᄇᆡ례ᄒᆞ며 왈, “부인의 원ᄃᆡ로 왕비ᄂᆞᆫ 안니 다려가올 거시니, 쇼장의 어두온 길을 여러쥬옵쇼셔.”(128)

그러나 용골대의 모든 공격은 무위로 끝나고, 마침내는 박씨에게 애걸하는 지경으로까지 패하게 된다. 이제 호적은 조선에게 가한 치욕 못지 않는 수모를 당하고 목숨이나 보전하려는 지경에까지 이른다. 그리고 박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퇴각하는 호장에게 의주로 가서 임경업을 만나게 함으로써 분노한 임장군으로부터 또 한번의 수모를 당하게 한다. 이는 우리 민족이 당한 수모를 철저히 응징함으로써, 호란을 겪은 민족적 자존심을 대리보상해 주고 있다.

병자호란은 실질적으로 조선이 참패한 전쟁이지만, 작품에서 호적에 대한 박씨의 복수는 통쾌하기 짝이 없다. 특히 피화당을 침범하려는 호장 형제를 무찌르며, 용골대를 박씨가 마지막으로 무릎을 꿇리는 대목에서 느끼는 통쾌함은 더하다. <박씨전>에서 호적은 조선을 침략하여 국왕으로부터 降書를 받아냈지만, 한 여인 앞에서는 맥을 못추고 최상의 치욕을 당하고 만다.

국가적 차원의 갈등이 드러나는 것은 병자호란이 발발했을 때이다. 그러나 병자호란의 상황이 작품에서는 아주 적은 분량으로 언급되었고, 오히려 박씨가 호장 용울대와 용골대를 혼내주는 부분이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당한 역사적 치욕을 그들에게 전가시키기 위한 것이며, 이런 의도에서 구성된 것이 피화당 싸움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보다도 세밀하게 묘사되었다. 이는 병자호란에서 조선이 항복한 것을 기정사실로 보고, 다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승리를 피화당을 무대로 박씨와 시비 계화를 통해 설욕하려는 것이 중심이 된다. 호적과의 대결 장면에서 박씨는 천지조화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며, 수많은 적군을 혼자의 힘으로 제압한다. 더구나 남성의 전유물이었던 국가적인 전쟁이 연약한 여성의 손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은 남성이 아닌 여성의 영웅적 활동이 주는 신선감과 함께 독자의 놀라움을 배가시킨다.

이처럼 <박씨전>은 역사적인 사실인 병자호란의 치욕을 송두리째 부정하지 않고, 박씨와 용골대 형제와의 싸움을 통해 병자호란의 참패의 부분적인 승리를 허구화하고 있다. 그것도 일개 연약한 여성에게 도술을 부여하여 감당케 한 것은 당시

독자, 특히 여성들에게 큰 용기와 자신감을 불어 넣었을 뿐 아니라 작품의 가치를 더하는 요인이 된다.[75] 비록 조선이 병자호란에 패하여 조정에서는 강화를 수락하지만, 박씨의 영웅적 활약으로 민족적 자존심을 지킬 수 있었다.

그리고 박씨는 병자호란 때에 규중에서 나라의 위엄을 되찾고 왕비의 위태함을 구한 功을 인정받아 왕으로부터 충효와 그 덕행을 칭송받고 정렬부인에 봉해진다. 결국 여기서는 박씨의 국가적 차원에서 활약한 영웅적 활동이 중심이 되면서, 가정에만 묶여 있던 박씨를 해방하여 국가적 차원의 영웅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한편, 국가적 갈등이 일어나는 부분에서는 박씨의 활약상과 임경업의 이야기가 결합되어 전개되고 있다. 국가적 차원의 갈등은 박씨가 용골대 형제를 무찌름으로써 해소되지만, 작품에서 전란의 상황을 더욱 실감나게 하고 소설적 흥미를 증진시키는 것은 임경업의 이야기를 끌어들였기 때문이다.[76] 피화당에서 용골대를 맞아 펼치는 박씨의 싸움이 道術戰의 양상을 띠며 허구적 흥미를 불러일으킨다면, 뒤이어 나타나는 임경업의 부분은 현실적인 리얼리티를 제공하고 있다. 이 두 사람의 활약은 실제로 패배한 역사를 승리의 역사로 전환시키면서 서사적인 리얼리티를 유지시켜 재미와 설득력을 동시에 획득하고 있다.[77]

이상의 고찰에서 이 작품의 갈등 구조는 박씨의 추모로 빚어진 가정 내적인 갈등과 병자호란을 맞아 발생한 국가적 갈등으로 나타난다. 이를 통해 여성의 신분인 박씨가 가정적 차원과 국가적 차원 모두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주도적 위치에서 이를 해결하려 했다는 점에서 유기적 구성을 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75) 신동일, 「李朝戰爭小說 朴氏傳硏究」, 『논문집』6, (육군사관학교, 1968).

76) <박씨전>과 <임경업전>을 자매편적 성격을 지녔다고 하여 비교한 연구들이 있는데, 특히 이 '가달의 난'을 평정한 대목에서 <임경업전>이 주인공의 활약상을 극대화시키면서 전쟁중심의 구성으로 일관한데 비해 <박씨전>은 지모와 지략을 지니고 사건을 해결하는 데 중점이 놓여 있다. 前作이 역사의 허구화라면 後作은 허구에서 역사적 소재를 편입시킨 구도를 형성한다고 할 만하다. 전준걸, 앞의 책, p.88.

77) 김대숙, 앞의 책, p.173.

Ⅳ. <박씨전>의 주제 의식과 사상성

1. 민족의 자긍심 회복과 근대 여성 의식

이제까지 <박씨전>의 형성시기와 작가, 그리고 구성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무엇보다도 강하게 표출되는 두 가지 의식을 살펴 볼 수 있었다. 이 작품이 병자호란이라는 국난을 겪음으로써 형성된 강한 역사 의식의 반영과 함께 여성의 뛰어난 능력을 남성과 대비시켜 패전의 감정을 여성이 주도하여 정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역사 의식과 여성 의식의 표출은 결과적으로 작품 내에 존재하는 작가의 창작 의도로서 구체적으로 형상화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1) 민족의 자긍심 회복

인조 15년(1937년) 1월 30일, 인조는 세자와 함께 삼전도에서 청 태종에게 세 번 절하고 아홉 번 머리를 조아리는 항복의식을 치루었고, 청군은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을 인질로 하고, 김상헌 등 척화파의 주요 인물들을 묶어 심양으로 돌아감으로써 병자호란은 끝이 났다.

이처럼 씻을 수 없는 대욕을 겪은 뒤 청에 대한 반감은 실로 민족적 운동으로 일어났다. 임경업은 명과 결탁해서 청을 치려 한 사실이 있으며, 인조의 뒤를 이은 효종은 북벌을 계획하기도 했다. 그리고 북한산성과 남한산성을 수리하여 자주국방을 실천하려 했다. 이로부터 자각의식이 서서히 일어 排淸意識과 북벌이라는 자주국방이 대두되었고 天命觀에 의한 숙명론적인 시대의식을 낳아 그것이 정화되어 <박씨전>군을 잉태하기에 이른 것이다. 다시 말해, <박씨전>은 병자호란이라는 대참상을 겪은 다음, 17세기에 들어 효종의 북벌의지로 점철된 시대의 호적에 대한 적개심과 國恥的 항복에 대한 민중의 팽배된 감정에서 출현한 것이며, 이를 통해 새로운 현실극복의 의지를 드러내 주고 있는 작품이다. 또한 병자호란이라는 대전

란을 통해 사회, 경제적 피폐와 더불어 지배계급의 허위와 실상이 폭로되는 기점에서 이러한 사태를 수습하고 재건할 수 있는 새로운 인물상의 요구가 이룩해 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박씨전>은 병자란에 이르는 역사적 골격에 있어서는 사실과 다름이 없으나 <임경업전>에 나타난 임경업의 영웅화를 계승하여 허구적인 구성이 나타날 뿐만아니라, 박씨의 영웅적 행위, 즉 박씨가 여자객을 도술로 추방하고 피화당에서 용울대를 梟首하기도 하는 등의 가공적인 이야기들도 더 삽입되어 있다. 장덕순 교수는 이러한 전쟁영웅들의 영웅화, 신비화는 그 민족성과 국민정신의 특색을 나타낸 것이며, 역사적 전쟁을 작품화하려는 소설적 수법의 좋은 효과[78]라고 지적한 바 있지만, 이 작품에서 보이는 역사적 사실에서의 屈折素는 바로 양란 후 만주족에 대한 민족감정의 반영이요, 현실에서 상대적으로 형성된 역사의식 내지 영웅적 형상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박씨전>에 나타난 병자호란 전후의 역사적 측면을 중심으로 호족과의 대립에서 박씨의 영웅적 행위를 통하여 작가가 병자란 후의 민족감정을 어떻게 표출하려 하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박씨전>에서 역사적 부분은 시백이 상사가 되어 임경업과 함께 명에 사신으로 갔다가 可達이 청을 침략하여 호국이 명에 請兵을 요청하자, 임경업이 請兵將으로 출전하여 가달을 물리치고 호국을 구해주게 된다.

조선의 장수이면서, 명의 추천을 받아 請兵將이 되어 可達을 격퇴하고 항복을 받은 사실은 당시의 사대종주국이었던 명나라의 장수보다도 더 우수하며, 충분히 外侵에 조선을 구원할 수 있는 能將으로까지 임경업이 영웅화되어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이 작품에서 보면 가달의 침략으로 거의 망하게 되었던 호국이 임경업의 도움으로 나라를 보존한 후 다시 나라가 부강해져 조선을 침략하려고 하지만 義州府尹 임경업이 두려워 감히 조선을 치지 못한다.

---

78) 장덕순, 앞의 책, p.317.

이적에 호적이 강셩ᄒᆞ여 ᄌᆞ로 침범ᄒᆞ거날, 빅젼빅승ᄒᆞ여 물이치고 북방을 굿계 숣히더니, 무지ᄒᆞᆫ 호왕이 죠션을 치랴 ᄒᆞ고 제신을 모화 의논헐ᄉᆡ, 호왕이 제신다러 왈 "우리 나라ᄂᆞᆫ 지방이 광활ᄒᆞ나 됴션장슈 임경업을 제허헐 슈가 업스니, 엇지 가통치 아니ᄒᆞ리요." ᄒᆞ시며(84)

라고 하여 호국이 조선을 치지 못하는 이유는 순전히 임경업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임경업의 實記를 보면 작품에 나타난 것과 같이 義州府尹을 한 일은 있으나 북방을 침략한 호병을 크게 무찌른 일은 없었다.[79] 이것은 임경업이 義州府尹을 했다는 사실에 허구적인 이야기가 덧붙여 진 것이다.

청은 병자란 전에 용골대와 마부대를 王后 吊祭의 명목으로 조선에 보내었는데 그들의 목적은 엄밀히 정세를 탐지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조선은 이들을 엄중히 감시하였으며, 이에 놀란 사신들은 도망해 버렸다. 이 사신에 대한 사건을 작가는 기홍대라는 여자에 대한 일로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박씨는 기홍대를 보내고 나서 그들이 곧 침략해 올 것을 짐작하고 방비를 굳건히 할 것을 시백을 통해 임금께 알린다. 그 때 다른 신하들은 박씨의 뜻에 동의했으나 영의정 김자점만이 반대하였다. 김자점은

시화년풍ᄒᆞ고 국ᄐᆡ민안ᄒᆞ와 강구연월에 격양가를 일삼거날, 이ᄀᆞᆺ튼 ᄐᆡ평셰계의 죠고마ᄒᆞᆫ 계집에 요긔로온 말노 발셜ᄒᆞ와 죠졍를 경통케 ᄒᆞ오며, 민심을 요란케 ᄒᆞ오니 죄ᄉᆞ무셕이옵거날, 뎐하씌옵셔 이갓튼 요망ᄒᆞᆫ 말숨을 드르시고 깁히 심녀ᄒᆞ옵셔 국법을 밝히지 아니ᄒᆞ옵시니, 신ᄂᆞᆫ 원컨ᄃᆡ 이 사ᄅᆞᆷ을 먼져 국법으로 다ᄉᆞ려지이다.(112)

라고 말하였고 모든 諸臣이 김자점의 권세에 눌려 감히 반론치 못하였으므로 박씨의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역사적 인물로서의 김자점은 인조반정 때의 공신으로 도원수로 있으면서 방비를 소홀히 하여 민중을 중히 여기지 않아 민심을 잃었던 사람이다. 그는 또한 북방의

79) 『林忠愍公實記』, 京城 大正二年, p.54.

重鎭을 옮겨 청군에게 길을 열어 준 결과를 초래하였고, 청군의 침입을 모르고 늦게 馳啓하지 않아 적의 진군도 더욱 빠르게 하였다. 그리고 봉화가 두 번이나 올랐어도 그들이 침략할 염려가 없다 하였고, 침략을 알린 申榕을 죽이려 한 인물이기도 하였다.[80] 이런 결과로 인해 전란의 피해를 많이 입게 되었고, 그 후에도 자점은 親淸派가 되어 세도를 부리다가 결국 역부죄로 사형되었다. 이런 史實로 인해 작가는 병자호란의 패배에 대한 책임을 김자점에게 돌려 그에 대한 분노와 증오심을 표현하고 있다.

사실 민중들은 국가의 존망은 아랑곳없이 정권 다툼에만 혈안이 되어 전란에 대비도 하지 않은 임금을 비롯한 무력한 지배층에 대한 불만이 대단하였을 것이나, 그들에 대한 불만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못했다. 그러기에 김자점에 대한 분노와 증오심을 부각시키고, 다른 지배층에 대한 감정은 천의의식으로 돌려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

적군이 경성으로 들어오자 조선은 무방비 상태였기 때문에 인조는 강화로 가지 못하고 남한산성으로 피하였다. 인조의 이 피난 과정은 작품에 史實대로 묘사되었으나 항복 과정은 講和書를 전하는 것으로 간략하게 처리되어 있다. 그런데 인조의 항복 과정이 간략한데 비해서 박씨가 도술로 호군을 혼내 주는 허구적 구성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부분을 보면 박씨가 계화를 시켜 피화당을 넘보는 용울대의 목을 베게하고 또 이 소식을 듣고 복수하러 온 용골대는 방향 감각을 잃고 헤매는 극도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게 하였다.

> "이 무지ᄒᆞᆫ 용골ᄃᆡ야, 네 동ᄉᆡᆼ은 ᄂᆡ 칼의 쥭엇거든 허물며 너죳ᄎᆞ ᄂᆡ 칼에 쥭고져 목숩을 ᄌᆡ촉ᄒᆞ는다?" 골ᄃᆡ 이 말을 듯고 더욱 분노ᄒᆞ여 ᄭᅮ지져 왈, "너ᄂᆞᆫ 넛지ᄒᆞᆫ 녀ᄌᆞ관ᄃᆡ ᄃᆡ장부를 ᄃᆡᄒᆞ여 욕셜노써 희롱ᄒᆞ는다? ᄂᆡ 동ᄉᆡᆼ은 불힝ᄒᆞ여 네 숀의 쥭엇건이와 우리ᄂᆞᆫ 네 군왕의 항셔를 바닷스니, 너의도 우리 빅셩이라. 엇지 우리를 ᄒᆡᄒᆞ려 ᄒᆞ는다. 가

80) 김미란, 앞의 책, p.43.

위 나라를 모로는 녀ᄌᆞ로다. 살여 쓸데 업고 쥭염즉ᄒᆞ미니, 급히 나와 ᄂᆡ 칼을 바드라.” ᄒᆞ며, “네 죄를 쇽ᄒᆞ라.”(122)

라고 하나 “계화 그 말을 드른 쳬도 아니ᄒᆞ고” 그들에게 끝까지 굽히지 않았다. 그리고 용골대가 退兵하여 回軍할 때 王妃와 세자군은 인질로 끌고 가려 하였으나 박씨는 용골대에게 王妃만을 모셔가지 못한다고 하였고, 이를 거역하던 용골대는 박씨의 도술에 혼이 난다. 이러한 실제적인 승리가 아닌 승리의 의미는 바로 정신적 승리감의 표시라고 하겠다. 이 정신적 승리를 위해 가공의 인물인 박씨를 천상적 존재로 규정하고 도술이라는 초인적인 능력을 부여한 것이다.

잡히여 ᄀᆞ는 부인들리 앙텬탄왈, “박부인는 무삼 ᄌᆡ죠로 환을 면ᄒᆞ고 본국에 안져 피ᄒᆞ엿는데 우리는 무삼 죄로 말이타국에 잡피여가는고. 또한 인제 가면 사싱을 긔록지 못ᄒᆞ리로다. 그러ᄒᆞ나 아지 못계라. 하월하시에 고국산쳔을 다시보리요. 이거시 꿈이야 싱신야.” ᄒᆞ며 쯩바닥을 짜려 통곡ᄒᆞ거날, 박부인이 이윽히 보다가 왈 “제부인는 슯흐물 진정ᄒᆞ고 내 말을 드르옵쇼셔. 셰상ᄉᆞ란 고진감ᄂᆡ요 흥진비ᄅᆡ오니 ᄎᆞ량ᄉᆞ는 고금의 상ᄉᆡ라. 그ᄃᆡ 열위는 과히 셜허 말르시고 평안히 가시면 삼년 후 호국에 드러가 우리 셰ᄌᆞᄃᆡ군과 그ᄃᆡ등을 다려올 사ᄅᆞᆷ이 잇슬 거시니, 니도 역시 텬쉬요 죠션운이 불길ᄒᆞ미라. 아모쪼록 관심셔긔ᄒᆞ야 지ᄂᆡ다가, 그 ᄯᆡ를 기다려 무ᄉᆞ히 환국ᄒᆞ옵쇼셔” ᄒᆞ고 이별ᄒᆞ니(130)

이 부분은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이를 천의로 돌리고 참아야 하는 박씨의 영웅으로서의 한계를 보여주는 곳이다. <박씨전>의 全編에는 天意, 天運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것은 ‘天意’로 집약될 수 있으며, 국가의 운명적 수난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는데, 지배층에 대한 불만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못한 민중들의 체념적 명분인 동시에 현실의 패배에 대한 합리화이며, 정신적 위안인 것이다.

<박씨전>의 천의에 대한 태도에는 민족적 치욕을 씻으려는 노력이 강렬하게 나

타나 있다. 박씨와 같은 神人과 임경업과 같은 명장이 있는 조선은 능히 청을 물리칠 수 있었으나 그것은 天意가 아니다. 모든 國事는 하늘이 예정하시는 인간의 능력 밖의 일이므로 비록 청을 물리칠 수 있으나, 그것은 天意를 거역하는 일이므로 天意에 따라 복수할 때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상의 고찰에서와 같이 <박씨전>은 병자호란 당시 역사적 인물의 등장과 함께 전쟁의 실상을 사실대로 재조명하여 당대의 무력한 정치, 사회상을 그대로 폭로하는 한편 참패의 치욕을 정화하려는 민중의 염원에 따라 박씨라는 영웅적 인물을 창출하여 호적에 대한 적개심과 민족적 자긍심을 일깨운 것으로 당시대인의 의식세계를 투영시킨 격조 높은 문학성을 살리고 있다.

결국 임금도 항복하고 신하도 무릎을 꿇었지만, 민중은 굴복하지 않았고 비록 비현실적인 힘으로나마 호국의 장수들과의 힘의 대결에서 승리를 거두었으니 여기에 민중의 정신적 승리가 있다고 하겠다.

2) 근대 여성 의식

조선시대에 있어서 여성의 미덕은 정절과 순종이었기에 목숨을 걸고서라도 정절을 지키면서 남성의 의견을 따르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것이 부녀자들이 갖추어야 할 최고의 가치로 강조된 婦德이었다.[81] 부녀자에게 중요한 것은 외모가 아닌 부덕임이 거듭 강조되면서, 여성의 미모는 장부의 심지를 흐리게 하는 한 요인으로 간주되기도 했고, 미색에 대한 남성들의 관심은 일종의 미혹이나 방탕으로까지 치부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규범적 관념일 뿐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부덕이 재삼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외모가 그 만큼 중시되고 있었다는 반증이다. 고전소설 여주인공들이 한결같이 절세미녀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나, 여성의 추한 외모가 악의 징표인 양 그려지고 있는 데서도 이는 뒷받침된다.[82] 더욱이 외모로 선악을 형상화하는

81) 女四書 婦行章, "女有四行 一曰婦德 二曰婦言 三曰婦容 四曰 婦功"

82) <장화홍련전>의 계모 허씨, <심청전>의 뺑덕어미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것은 오직 여성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83]은 이를 한층 분명하게 해 준다.

이런 점에서 <박씨전>이 여성의 외모를 정면으로 문제 삼고 나온 것은 일단 주목할 만하다. 그것은 부덕을 최고 덕목으로 강조하면서 실제는 부덕보다 외모로 여성을 평가하는 현실을 통해 관념과 현실의 거리, 여성에 대한 당대 사회의 이중적 태도가 확연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주목할 것은 박씨가 비범한 재능과 부덕을 갖추고서도 단지 외모 때문에 주위의 냉대 속에 힘든 삶을 살아야 했다는 점이다. 가장의 거듭된 질책과 훈계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의 냉대는 바뀌지 않고, 결국 박씨는 외떨어진 초당에서 살아가는 가련한 신세가 된다. 며칠간이나 계속된 남편의 장원급제 축하연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홀로 적막한 쵸당'을 지켜야 할 정도다. 관념적 규범은 부덕을 강조하고 있었지만, 박씨의 삶은 오히려 외모에 의해 실질적으로 규정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뒤에 이시백이 외모만 중시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박씨에게 사죄함에 따라, 외형상 외모의 가치는 다시 부정되고 부덕의 가치가 재확인된다. 하지만 이시백의 사죄는 미모에 대한 자신의 욕망을 부정한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미녀로 변신한 아내의 환심을 사 이를 충족시키려는 일종의 전략적 성격이 강하다. 박색이라고 구박만 했던 아내가 사실은 절세 미녀였다는 뜻밖의 사실에서 오는 당혹감과 그런 미인을 스스로 차버린 꼴이 된 데 대한 후회와 자책감이 짙게 깔려 있다. 남편으로서의 체면과 자존심도 버린 채 아내에게 용서를 비는 그의 행위는 미인을 얻으려는 강렬한 욕망의 또 다른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그의 태도 변화는 그의 사죄의 말과는 정반대로, 결국 여성에게는 부덕이나 능력보다 외모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역으로 확인해 준다. 박씨의 변신과 더불어 그녀에게 부정적이던 모든 사람들의 태도가 한 순간에 우호적으로 바뀌는 것도 사정은 동일하다. 여성의 최고 미덕으로 강조되던 부덕은 그들의 현실적 삶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하는 반면,

83) 고전소설의 남성 등장인물 중 악인아라 하여 외모가 특별히 추하게 형상화된 예는 발견되지 않는데, 이는 외모가 여성에게서만 특히 문제되고 있었음을 시사해 준다.

별 가치 없는 것으로 치부되던 외모는 그들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이 작품은 외모로 여성을 평가하는 것을 비판하며 부덕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지만, 그러한 언표적 진술과는 달리 여성에게 있어 외모는 결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 준다. 부덕과 재능이 결코 외모보다 앞설 수 없다는 가장 단순한 일반인의 의식이 그대로 형상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84] 이는 곧 당대 사회가 여성을 주체적 자아를 지닌 하나의 인격체로 보기보다 비주체적인 정물적 존재로 보고 있었음을 말해 준다.

조선시대 남자와 여자의 지위 관계 속에서 <박씨전>을 살펴보면, <박씨전>에 투영된 여성 의식이 당시 여성의 지위에서 한층 발전된 지위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곧 근대지향적 여성 의식을 드러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조선시대 여성의 지위와 자격은 매우 박약하였으며 예속을 그 특징으로 하였다.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남녀를 구별하는 사상이 심하지 않았으나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여자의 지위가 하락되어 남자에게 예속적인 상태로 되었다. 그리하여 남녀와 처첩을 구별하게 되었고 여자의 예속적인 지위를 찬양하는 열녀의 미덕만이 강조되었던 것이다. 또한 여자의 사회적 활동은 철저하게 제한되었고 여성의 법률적 행위는 반드시 남편이나 가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유교는 순종을 여자의 최고의 미덕으로 삼고 정절을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三從之道가 강조되고 女必從夫의 관념이 매우 강하였다.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이른바 내외라 하여 집에서도 至親이 아니면 남성과의 면접이나 대화를 피하였다. 남녀칠세부동석이라는 유교의 가르침을 따른 까닭에 여자의 사교는 악덕시 되었다. 태종 12년에 부녀의 출입에는 蔽面掩身하라는 법령이 내려져 상류여성은 너울을 쓰고 하류여성이라도 장옷 등을 써서 앞을 가리우게 되었다. 또한 성종 8년부터는 여자의 재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일부다처제가 공인됨으로써 여자의 지위는 한층 격하되었다.

---

84) 현길언, 「박씨부인전의 주제에 대한 일고찰」, 『한국언어문학』20집, (한국언어문학회, 1981).

조선시대의 여자는 집안에서 항상 忍從의 생활만이 강요되었고, 오직 가사일을 주무로 삼았다. 여자는 또한 정조를 잘 지키고 자기의 예속된 신분 이상의 것을 바라지 말아야 하며, 몸가짐이 항상 얌전해야 하고 언제나 복종하게끔 만들어진 예법을 잘 지켜야 했다. 여자는 이미 10세가 되면 남자처럼 나다니지 말아야 하며 남자가 길의 우측을 걸으면 여자는 길의 좌측을 걸어야 했다. 그리고 남녀가 직접 물건을 주고받는 일도 祭床의 경우 이외에는 삼가야 했다. 이렇듯 여자의 예속적인 지위는 조선후기에 이르러서는 더욱 심해져 男尊女卑나 夫唱婦隨등의 사상이 확고부동한 규범으로 뿌리를 내렸다.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서당이나 가정에서 더욱 강조되어 三從之道나 烈女不更二夫의 義가 일반민중에게까지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따라서 조선시대 사회에서 부인은 남편의 동등한 동반자가 아니라 가문의 영속을 위한 수단이며, 도구로서 존재하였고 가내 노동력을 공급한다는 의미가 컸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시대 가부장제적 전통사회는 남성의 권위를 높이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여성을 비하시켰으며, 유교적 관념은 여성의 주체성을 부정하고 종속적 존재로 규정하였다. 이는 '三從之道'와 '七去之惡'의 규범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듯, 조선시대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다. 남성은 주동적 존재, 여성은 피동적 존재로 간주되었으며, 여성의 주도적 능동성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 않았다. 여성들에게 부덕이 특히 강조되었던 것도 이런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조선시대 부덕의 내용은 사실상 이러한 남성 중심의 질서에 순응하라는 것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박씨전>은 이런 현실과 정반대로 여성을 주동적 존재, 남성을 피동적 존재로 형상화하고 있어 주목된다. 남녀간의 위상의 역전은 이시백 부부를 통해 우선 쉽게 확인된다. 백옥 연적을 얻어주어 남편을 급제시키고, 자객의 잠입을 알아 그의 목숨을 구해 주며, 남편의 조정 일까지 일일이 훈수하는 박씨의 행위가 그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국가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다. 조선과 호국의 모든 국사는 외형상 왕에 의해 결정되고 양국간의 전쟁 또한 남성들에 의해 치러지고 있지만, 실질적

결정과 지휘는 배후의 여성들이 하고 있다. 박씨와 호왕비가 바로 그들이다. 호왕비가 호국의 조선 침공을 주도하고 전략을 지휘하고 있다면, 박씨는 이에 맞서는 조선의 방책과 전략을 지휘하고 있다. 또한 기홍대와 계화는 이들 대신 전면에 나서 전쟁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전쟁의 승패는 왕이나 장수 등 남성들의 능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배후에서 이들을 조종하는 여성들의 능력에 의해 결정된다.

이처럼 이 작품은 남성들이 외형상 강한 힘을 갖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실제는 여성들에 의해 조종되는 존재임을 보여 준다. 남성들이 여성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성들이 남성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음을 보임으로써,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는 일반적 통념을 뒤집어 놓고 있다. 이런 사정은 작품 속 등장인물들의 발언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확인된다.

> (이득춘이) 시빅를 불너 꾸지져 왈 …(중략)…녀ᄌᆞ는 편셩이라 훈일을 모로 ᄲᆞᆫ더러, 일부함원의 오월비상이라 ᄒᆞ엿스니(32)

> ᄉᆞᆷᄒᆞ다, ᄃᆡ장부 ㅣ 츌셰ᄒᆞ여 일국지ᄃᆡ장이 되여 말이타국의 ᄃᆡ공을 일우랴 ᄒᆞ고 귓병ᄒᆞ여 나왓더니 니졔 죠고마ᄒᆞᆫ 녀ᄌᆡ에 숀의 죽계 된니 니 안이 졀통ᄒᆞᆫ가(116)

> 션군이 보ᄒᆞ되 용울ᄃᆡ는 장안에셔 안녀ᄌᆞ의계 죽엿다(118)

위에서 우리는 여성에 대한 당대 남성들의 편견과 우월감을 쉽게 읽어낼 수 있다. 여자는 속이 좁아 뒷일을 모른다는 이득춘의 말이나, 장부로 태어나 여자의 손에 죽게 되었다는 용울대의 탄식이 우선 그러하다. 그리고 용울대가 아녀자에게 죽었음을 특별히 강조하는 순초군의 보고는 이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 준다. 이러한 발언의 기저에는 여성을 비하하고 열등시하는 의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박씨의 능력이 남성 이상임을 인정할 정도로 여성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 인식을 보이는 이득춘마저 이런 부정적 편견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여성에 대한 당대 사회

의 시각이 어떠했는지를 충분히 미루어 짐작케 한다.

하지만 이러한 남성들의 편견과 우월감은 사건의 진행과 더불어 근거 없는 허구임이 드러난다. 후사를 모르는 편협함을 보이는 것은 오히려 남성인 이시백이며, 여성인 박씨는 뒷일을 생각하는 여유와 포용력을 보인다. 그리고 전쟁의 진행과 더불어 배후에 있는 여성들의 존재는 더욱 부각되는 반면, 전면에 나서 있는 남성들의 존재는 상대적으로 왜소해지기만 한다. 이런 사정은 용골대 형제를 조롱하는 계화의 발언에서 극에 달한다.

> 계화 우어 왈, 호국장슈 용울ᄃᆡ야 불상코 가련ᄒᆞ다. 네가 ᄃᆡ장부 명ᄉᆡᆨ을 가지고 타국의 나왓다가, 날ᄀᆞᆺ튼 잔약ᄒᆞᆫ 안녀ᄌᆞ를 당치 못ᄒᆞ고 탄식을 길리 ᄒᆞᆯ ᄲᅮᆫ이니(116)

> (계화 왈) 네 동ᄉᆡᆼ 울ᄃᆡᄂᆞᆫ 날ᄀᆞᆺ튼 잔약ᄒᆞᆫ 녀ᄌᆞ 숀에 죽었ᄂᆞᆫᄃᆡ, 너도 날을 제어치 못ᄒᆞ고 져닷지 분ᄒᆡᄒᆞ니 엇지 가긍치 안이ᄒᆞ며 어이 녹녹지 안니헐랴(124)

계화는 자신이 '여자'임을 거듭 환기시킴으로써 여성을 업신여겨 온 남성들의 우월감을 맘껏 조롱한다. 대장부가 여자 하나를 못 당하느냐는 그녀의 야유 앞에 여성을 무시해 왔던 남성들의 우월감은 처참하게 허물어진다. 평소 열등한 존재로 치부해 왔던 '여자'로부터 오히려 동정을 받는 처량한 신세가 된 용골대 형제의 모습에서 여성에 대한 남성의 우월감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물론 용골대 형제는 호국의 장수들이라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야유를 남성 일반에 대한 것으로 보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이들에 대한 모욕은 호국에 대한 적개심의 표출이라는 성격이 짙기 때문이다. 하지만 능력이 중시된 남성들과 달리 여성들의 경우에는 외모가 더 중시됨에서 알 수 있듯, 여성을 열등시한 것은 당대의 일반적 통념이었던 만큼 이를 남성 일반에 대한 것으로 이해해도 별 무리는 없으리라 생각된다. 적장에 대한 모욕의 방법을 굳이 '여자에 의한 패배'로 설정했다는 것 자체가 바로 당대 사회의 여성 비하 의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85]

이처럼 이 작품은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는 통념과는 반대로, 오히려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우월함을 보여 준다. 규방을 지키며 가사에만 전념하면 된다고 간주되던 여성들이 '장부들이나 할 일'인 국사는 물론 전쟁에서까지 남성을 압도하는 능력을 발휘하고 있음이 그것이다. 외형상으로는 남성들이 우위에 있는 듯이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여성들이 우위에 있다는 뜻이다.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남성이고, 남성을 지배하는 것은 여성이라는 논리와도 통한다. 여성을 하나의 정물적 존재로 보는 시각이 강하던 당시 풍토에서 그들의 능력을 이처럼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며, 이점에서 이 작품은 전통적 여성관과 구별되는 일정한 진보적 시각을 보여 준다. 여성들이 바깥일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부정적으로 인식되던 풍토에서 비록 관념적이기는 하지만, 여성이 국사에까지 관여하여 국가적 위기를 극복한다는 발상은 그 자체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뜻이다.

한편 이러한 작품 내적 논리는 이 작품이 당대 여성 독자들로부터 폭넓은 호응을 얻는 데도 매우 유리하게 작용했으리라 생각된다.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완전 봉쇄된 상태에서 남성들의 사회활동을 뒷바라지하는 역할만 강요받고 있던 당대 여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이 남성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논리는 여성의 역할에 큰 의미를 부여해 줌으로써 남성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그들에게 심리적 위안과 자기합리화의 근거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은 여성들이 현실적으로 그들의 능력을 입증해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상황에서 남성들의 우월감에 대한 효과적 반론이 될 수 있으며, 그들의 사회활동 욕구를 대리 충족시켜 주는 효과도 함께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처럼 <박씨전>에 반영된 여성 의식은 당시 한정된 여성의 활동영역을 넘어 가정과 국가라는 전영역의 확대라는 점에서는 우리의 문학사상 처음 있는 일대 사건이며, 이를 통해 근대적 여성상의 부각과 자의식 지향에 있어 그 의의가 자못 크다고 하겠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한계를 찾아 볼 수 있다. 이는 박씨가 순종적인 내조자의 역

85) 이원수, 「박씨전에 나타난 여성관」, 『어문학』제71집, (한국어문학회, 2000), pp.6-7.

할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녀가 국사 처리나 전쟁의 전면에 직접 나서지 않고 남편에 대한 조언자의 위치에 머무는 것을 이와 연관시켜 이해할 수 있다.

박씨가 보이는 덕행이라는 것은 사실 당대 사회가 여성들에게 강요하고 있던 남성 중심의 행위 규범에 충실한 것, 그 이상이 아니다. 자신을 아내로 대해 주지도 않는 남편을 위해 자기 삶을 희생하며 인고함은 물론, 그러한 남편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불평 한 마디 없이 시부모를 봉양하고 가산을 증식시키는 등 박씨는 전통사회가 요구하던 아내와 며느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박씨를 통해 드러나는 부덕의 실체는 남편과 가문을 위한 일방적인 희생과 봉사에 다름 아니다. 박씨의 언행은 철저하게 남성 중심의 윤리규범에 바탕하고 있으며 그 기저에는 가문주의와 가부장제 이념이 자리잡고 있다. 추한 외모 때문에 모진 박대를 받으면서도 '남편의 입신을 위해 미모를 감추고 있었다'는 그녀의 발언에서도 이는 뒷받침된다.

이처럼 이 작품은 외형상 여성에 대해 상당히 새로운 시각을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여전히 가부장제 이념에 기반한 남성 중심의 시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외모로 여성을 평가하는 것을 비판하며 부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외모는 여전히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고 있으며, 여성의 능력을 부각시키고 있지만 그것은 아직 현실성이 결여된 관념적 인식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작품 속에서 드러나는 부덕의 실체는 남편과 가문을 위한 여성들의 일방적 헌신과 인고에 다름 아니다. 표층에서 '주장되는' 관념적 인식과 심층에서 '드러나는' 실제적 태도가 서로 어긋나고 있으며, 바로 이러한 이중성 속에 이 작품이 기반하고 있는 여성 의식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바로 전통적 여성관이 여전히 현실을 지배하고 있는 가운데, 여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싹트고 있던 조선후기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여성의 외모와 능력, 남성과 여성의 관계 등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는 했지만, 그것이 아직 기존의 인식을 대체할 정도로까지 내면화되지는 못했음을 보여준다.

2. 유교적 가치관

유교적 가치관의 특징은 “기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계급의 대물림을 통해, 체제의 안정이라는 그 나름의 선을 추구하되, ‘變化’보다는 ‘安靜’을, ‘現實’보다는 ‘原則’을, ‘부드러움’보다는 ‘강인함’을 추구하는 세계를 지향하는 것”이다.[86] 조선 시대의 사회는 전형적인 가부장제 속에서 남성은 가계를 전승하고 사회를 유지하는 중심인물로, 여성은 그런 남성에 비해 부수적인 존재로 인정되어 왔다. <박씨전>은 이러한 유교적 가치관을 비판하면서도 당시 지배적인 유교적 질서를 모두 부정하지는 못하였다. 이는 작품 전반에 유교적 가치관이 중심 사상으로 자리 잡아 중심 의미를 형성하고 있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항에서는 유교적 가치관이 <박씨전>에서 어떻게 형상화되고 어떠한 의미를 형성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박씨전>의 주요 사건은 한미한 처사의 딸인 박씨와 재상가의 장남인 이시백의 ‘혼인’, 박씨의 못생긴 용모로 인해 빚어진 갈등과 변신을 통한 해결, 그리고 뛰어난 능력을 갖춘 박씨가 병자호란을 맞아 펼치는 ‘활약’등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박씨의 媤父인 이득춘은 문무재덕을 겸비한 재상으로 儒家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이다. 그는 뛰어난 능력 외에도 知人之鑑이 있었으며, 퉁소를 잘 불어 花園의 꽃을 떨어뜨릴 정도였다고 묘사된다. 그의 뛰어난 능력은 그 자신과 가문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비범한 인물을 알아 볼 수 있는 능력, 즉 박처사와 그의 딸 박씨의 비범한 능력을 알아보는 지인지감이 있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는 아들 이시백과 박씨의 혼사로 귀결된다. 하지만 이득춘과 박처사가 정한 파격적인 혼인은 강한 반대에 부딪친다. 재상가와 산중 처사의 혼인은 격이 맞지 않는다는 점, 무엇보다도 문벌도 알 수 없다는 점이 주된 반대의 이유이다. 이러한 반대는 당대의 일반적 혼인 관습에 비추어볼 때 당연한 것이다. 더구나 사대부가의 경우 정치적 이해관계나 가문의 성쇠에 있어 결혼이 갖는 의미는 대단했기 때문에 혼인은 ‘人倫之大事’라 하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문 전체의

86) 이형균, 「유교사회의 사회합리화와 유교윤리의 역할」, 『한국사회학』34(1), (한국사회학회, 2000).

중요한 관심사였던 것이다. 하지만 이득춘은 그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혼인을 성사시킨다. 그런 점에서 가문보다는 박씨의 인격과 재능을 중시하는 이득춘의 논리는 당시로서 획기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 또한 표면적으로는 가문 중시의 혼인 관습에 문제를 제기하고는 있지만 그의 지인지감도 결국 혼인을 중시하고, 그를 통해 가문의 보전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점에서 유교적 이념에서 벗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추녀였던 박씨가 변신하여 절세미인이 된다는 것은 이 작품의 주된 흥미 거리인 동시에 미에 대한 당대의 인식이나 사상적 지향점을 보여주는 기능도 수행한다. 박씨가 미녀로 변신하기 전까지 작품 전반부는 주로 박씨의 추한 외모로 야기된 갈등에서 사건들이 전개된다. 우리 고전에서도 특히 주인공이 추녀로 설정된 경우는 그 예가 그리 많지 않다. 그럼 박씨가 이처럼 추녀로 설정된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서 행실이나 재주, 도덕성은 외모와는 별개로 여겼던 당대의 '미'에 대한 인식을 읽어낼 수 있다. 이는 외모의 미와 행실의 미를 별개로 인정했던 것이며, 미와 추를 변별하는 주요한 기준은 외모보다는 행실에서 더 큰 비중을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씨가 추녀로 설정되었던 이유는 이러한 태도와 깊이 연관되는 것으로, 행실미의 강조를 위해 극단적 추녀의 모습으로 외모를 몰고 갔던 것이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행실미의 강조가 절실했었음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한데, 외모에 대한 관심과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생각된다. 행실의 미를 강조하는 것은 좁게는 가문과 관련된 것이지만, 결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유교적 사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조선 중기 이후의 지배적인 사상인 유교적 가치관에서는 禮를 중요시했고, 그 중심에는 '家'가 놓여있었으므로 혼인, 조상숭배, 가문흥성을 최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점에서 박씨는 유교적 가치관에 합당한 인물로 행실의 미를 인정받아 긍정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예의를 중시하는 유교적 도덕관념의 기본은 忠 · 孝 · 烈의 삼강행실에 있었으며, 예의를 숭상하는 우리 조상들은 의복을 정갈하게 갖추어 입는 것에서부터 예가 시작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여인들에게 바느질은 부덕 · 용모 · 말 · 길쌈과 더불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중요한 범절이며, 덕목의 하나였다. 박씨는 시아버지 이득춘이 일품 벼슬을 받고 당장 입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주위 사람들의 조소에도 불구하고 시아버지의 조복을 훌륭하게 지음으로써 자신의 용모를 탓하는 가족과 사회를 원망하지 않고,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의 소임을 충실히 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옷 짓기는 행실의 미를 측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고 또한 신이한 연적을 남편에게 주면서 하는 말 역시 자신의 희생을 전제로 한 가문흥성의 기원이다. 가문을 중시하는 박씨의 인식 태도는 피화당 건립에서 극에 달한다. 3년간의 시집살이 기간을 지내며 지었던 이 피화당은 후에 호란으로부터 가문의 피해를 막는 데 절대적 역할을 하며, 나아가 청의 용골대 형제와의 전투에서 근거지가 되기도 한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피화당이 철저하게 자기 가문만을 피화하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박씨가 뛰어난 예지력과 도술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화의 범위를 가문의 차원으로 한정하는 것은 두 가지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첫째, 국가 차원의 경우 天意로 합리화되었기에 더 이상 避禍의 필요가 없다는 점, 둘째는 텍스트의 궁극적 지향은 가문의 보전에 있기 때문이라는 점이 그것이다.

하지만 박씨의 이런 신이한 능력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추한 외모로 3년여의 긴 시간을 독수공방하는 고통과 시모로부터의 구박 등 많은 수모를 당했다. 오직 媤父인 이득춘만이 감싸줄 뿐이었지만 이 또한 이유가 있었다.

> 아모리 졀ᄃᆡ가인을 갈희여 며ᄂᆞ리를 삼아도 녀힝 업스면 인륜이 희상ᄒᆞ야 가문을 보죤치 못ᄒᆞᆯ가 ᄒᆞᄂᆞ이다. ᄯᅩᄒᆞᆫ 비록 험상ᄒᆞᆫ 사ᄅᆞᆷ이라도 덕힝이 잇스면 일문이 흥ᄒᆞ야 만복을 누리난이, 무슴 말삼이 그닷지 슈다히 ᄒᆞ난뇨. 지금 ᄌᆞ부에 얼골이 츄비ᄒᆞ나 임날, 텬디간에 일런 질거온 일리 어ᄃᆡ 잇ᄉᆞ오릿가. 부인은 지감 업ᄂᆞᆫ 탓만 ᄒᆞ와 다시ᄂᆞᆫ 이ᄀᆞᆺᄐᆞᆫ 말삼을 발셜치 마옵쇼셔.(26)

> 네 부명를 거역ᄒᆞ고 그 마음을 곳치지 아니ᄒᆞ면 부ᄌᆞ간 불효ᄂᆞᆫ 고ᄉᆞ하고, 네 안히 포원ᄒᆞ면 녀ᄌᆞᄂᆞᆫ 편셩이라 훈일을 모로 ᄲᆞᆫ더러, '일부함원의 오월비상이라' ᄒᆞ엿스니, 네가 공명을 어이 ᄒᆞ며, 독슈공방에 홀노 원ᄒᆞ다가 목슘을 자쳐ᄒᆞ면 쳣ᄌᆡᄂᆞᆫ 도졍에 용납지

> 못헐 죄요, 둘지는 집안에 큰 지앙이 될 거시니, 엇지 근심되지 아니ᄒᆞ리요. 너는 엇지 ᄒᆞᆫ 사ᄅᆞᆷ이관ᄃᆡ 미식만 취ᄒᆞ고 덕힝을 싱각지 아니ᄒᆞᄂᆞᆫ냐(32)

이득춘이 박씨를 감싸는 이유는 '가문의 보전'과 '일문의 다행'을 위한 것이며, 처를 싫어하는 아들을 꾸짖는 이유도 만에 하나 '목숨을 자처'하는 일이 생겨 '조종의 죄인'이 되거나 '집안에 재앙'이 될까를 두려워해서였다. 이러한 유교적 사상은 박씨의 입을 통해서 한층 명백히 드러난다.

> 쇼부에 용열ᄒᆞᆫ 용모로 부부간 금실지락을 모로오니, 니는 쇼부에 죄라 누를 원망ᄒᆞ오릿가마는, 다만 쇼부의 원이 거가의 부모의 효셩을 지극히 ᄒᆞ고 나라에 츙셩을 극진ᄒᆞ와 입신량명ᄒᆞ옵거든 용방 비간의 츙졀과 갓치 유명ᄒᆞ여 쳔츄만셰ᄒᆞ온 후 타문의 다시 취처ᄒᆞ와 유ᄌᆞ유숀ᄒᆞ옵고 만슈무강 ᄒᆞ오면 지금 쥭ᄉᆞ와도 여ᄒᆞᆫ이 업곗습ᄂᆞ이다(48)

> 내 당쵸에 번형을 감쵸고 츄비ᄒᆞ게 ᄒᆞ기는 그ᄃᆡ가 혹ᄒᆞ지 못ᄒᆞ게 ᄒᆞ여 일심졍긔를 쓰게 ᄒᆞ미요, 또ᄒᆞᆫ 슈삼일을 졉어치 못하게 ᄒᆞ믄 그ᄃᆡ가 쳔심을 가지게 험이라(68)

비록 부부의 정은 모를지라도 가군이 잘되어서 '입신양명'하고 부모에게 '영화'를 보이고 나중에 다른 첩을 얻어서라도 '有子猶孫'하게 하겠다는 박씨의 목소리에서 처절할 정도로 철저하게 무장된 유교적 사상을 읽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말을 하게 만들던 박씨의 추한 외모가 사실은 남편을 '일심정기를 쓰게 함'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서 그 사상적 철저함이 더욱 뚜렷해지게 된다.

<박씨전>은 박씨의 변신을 계기로 추한 외모가 야기했던 가정적 갈등을 해소하고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다. 새 국면의 핵심은 '병자호란'이라는 역사적 사건으로, 청과의 갈등이 작품의 중심축을 이룬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박씨와 임경업의 눈부신 활약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씻을 수 없는 모욕을 당하고 만다는 점, 그리고 그러한 치욕이 '천의'로 합리화되며, 대부분의 책임이 김자점이란 한 개인에게로 돌려진다는 점이다.

(박씨왈)슯흐다, 우리나라 국운이 불힝ᄒᆞ여 쇼인에 죠졍이라. 이제 도적이 미구에 침노헐 터인ᄃᆡ, 간신의 나라가 되야 쇼인이 국권을 잡아, 국가 ᄉᆞ직을 위ᄐᆡ케 ᄒᆞ니 엇지 분한치 아니ᄒᆞ리요(112)

인용문에서 김자점이란 인물이 '治亂' 실패의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박씨전>은 명분론의 참패에 대한 모든 책임을 김자점이라는 일개인에게 지우고, 천의로 합리화하는 사상적 귀결을 보여준다 하겠다. 청에 대한 패배는 유교적 사상으로는 받아들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전쟁에 패배하였고, 치욕을 당하였다. 청에 대한 치욕적 패배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지점에 바로 유교사상의 명분론이 위치한다. 천의는 권력 유지의 정당화 수단을 뿐만 아니라 유교에게 있어서는 사고나 인식의 붕괴를 막을 수 있는 명분이었던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박씨전>은 당시 지배적 사상이었던 유교적 가치관을 토대로 구성되어 있는 작품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박씨전>은 작품 전면에서 당대의 무력한 정치나 사회상을 폭로하면서 유교적 가치관의 폐해를 비판하고 근대적 의식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지만 작품 내부를 살펴보면 본질적으로는 여전히 유교적 가치관은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Ⅴ. <박씨전>의 문학 교육적 가치와 교육방법

1. 문학 교육적 가치 탐구

대체적으로 어떤 나라든 전쟁 혹은 국난을 겪은 후에는 훼손된 민족적 자존심이나 긍지를 회복하려는 의지가 사상적으로나 문학적으로 나타나게 마련이다. 특히 우리 문학의 경우 그 한 예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고서 나타난 일종의 복수문학이라고 볼 수 있는 <임진록>, <임경업전>, <박씨전>등이다. 그 중 <박씨전>은 병자호란의 패배를 문학을 통해 극복하려는 민중의 욕구와 최초로 여성 주인공의 활약소설이라는 면에서 문학적 가치를 지닌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병자호란의 발발은 조선왕조의 무능과 통치를 맡은 사대부들의 이권다툼으로 말미암은 사상적 분열과 무방비 등에서 기인된 것이었으나, 그 결과가 초래한 희생은 엄청난 것이었다. 전란이 끝난 후에도 용골대와 마부대 등은 폐허가 된 이 땅에서 재물을 빼앗고 부녀자들을 강탈했다. 따라서 전쟁으로 파괴된 상황에서 민중의 호국에 대한 적개심은 극도에 달했고 胡國을 보복할 생각이 일어났으며, 이런 생각은 차츰 가설적인 복수를 상상하게 되었을 것이다. 무력으로는 졌지만, 그래서 현실이 괴롭지만 정신적으로라도 이겨보자는 상상은 각종 소설을 낳았다.

<박씨전>은 병자호란 당시 역사적 인물의 등장과 함께 전쟁의 실상을 사실대로 재조명하여 당대의 무력한 정치 · 사회상을 그대로 폭로하는 한편 참패의 치욕을 정화하려는 민중의 염원에 따라 박씨라는 영웅적 인물을 창출하여 호적에 대한 적개심과 민족적 자긍심을 일깨운 것으로 당시대인의 의식세계를 투영시킨 격조 높은 문학성을 살리고 있다. 또, 박씨라는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그가 변신 능력을 가지고 초인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여성들에게 그들의 우수한 잠재적 능력을 일깨워 주고, 무한한 정신적 자유를 부여하여 주고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이 사건 전개의 전환점이 되며 주인공의 상황을 새로운 국면

으로 끌고 가는 '변신'이라는 모티프이다. 변신이란, 자의든 타의든 간에 어떤 원형이 다른 형태로 바뀌는 것으로, 상황적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는 시간적, 공간적 변화를 포함한다. 이 작품이 변신이라는 상황을 설정하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현실에서의 불가능을 상상세계에서 가능케 하려는 데 있다. 조선 시대와 같이 여성이 제도의 중압에 눌려 있던 때에 박씨의 변신과 초월적 힘은 조선 시대 여성들에게 상상 속의 도피처로 그들을 인도하였다. 박씨가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초자연적인 힘을 가졌고, 또한 비범한 婦德과 婦功은 물론, 그 신묘한 도술로써 적을 혼비백산하게 만들었음에 비해, 박씨의 남편인 이시백은 극히 평범한 인물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박씨의 변신은 당시 활동이 극도로 제약되었던 여성들에게 그들도 남성 못지않은 우수한 능력을 갖추어 가정과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계기가 된다.

또한 박씨의 변신은 징벌 의식을 나타낸다. 박 처사는 박씨에게 厄運이 다 끝났으니 누추한 허물을 벗으라고 하였고, 박씨는 허물을 벗은 후 媤父에게 전생의 죄가 중하여 탈을 쓰고 태어났다고 하였다. 이러한 죄 때문에 박씨는 흉측한 모습을 타고났는데, 이 추한 모습은 그 비현실성 때문에 구제의 필연성을 수반한다. 이 구원은 정해진 기한이 만료된 후에 이루어지며, 이 변신 모티프를 통한 원죄 의식은 원초적 의식의 반영으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렇게 하여, 징벌에 대한 구제로서 아름답게 변신한 박씨는 남편을 비롯한 시댁 가족들과 다른 사대부 문인들의 사회에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박씨의 변신은 入社式을 의미하기도 한다. 금강산 깊은 심곡에 묻혀 있던 한 소녀가 결혼이란 과정을 거쳐 시댁으로 들어갈 때, 그 사회의 인정을 받으려면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거쳐야 할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박씨가 처음에 그 추한 용모 때문에 가족들과 친척들로부터 멸시당하고 후원의 초당에서 홀로 살면서 시부의 조복을 하룻밤 사이에 짓기도 하고, 여윈 말을 잘 먹여 비싼 값에 팔아서 살림을 윤택하게 하는 등, 새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기 위해 여러 가지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87] 이렇듯 '변신' 모티프는 <박씨전>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고 하겠다.

<박씨전>은 여주인공인 박씨가 애정문제나 가정사의 주관자로서의 역할 외에 외국과의 전쟁 및 외교 문제까지 주도하는 명실상부한 주인공의 역할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여주인공 박씨의 영웅적 활약은 병자호란의 전란에서 영웅의 출현을 기대했던 민중의 소망과 기대를 반영한 것과 일치되지만 일반적인 군담소설과는 달리 여성영웅을 형상화시켰음은 작가의 사상을 통한 당대의 사회상과 가치관을 수렴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여장군등장소설의 근대지향적 성격은 무너지기 시작한 전통적 가치관과 윤리관으로 말미암아 여성도 정치 · 사회에 참여하여 남성보다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의식적 각성이 문학 속에 크게 대두되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박씨전>은 바로 이와 같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최초로 성립된 국문소설로 박씨의 영웅적 활약이 돋보이고 있는데, 그 후 여성 의식이 점차 고조되면서 <정수정전>, <홍계월전>, <황운전> 등과 같은 본격적 여성영웅소설의 발달을 가져와 전쟁에 직접 참여하고 남성을 능가하는 활동을 통해 여성에 대한 전통 관념을 깨뜨리고 새로운 평가를 인식케 하였다.

이처럼 <박씨전>에 반영된 여성의 모습은 당시 한정된 여성의 활동영역을 넘어 가정과 국가라는 전영역의 확대라는 점에서는 우리의 문학사상 처음 있는 일대 사건이며, 이를 통해 근대적 여성상의 부각과 자의식 지향에 있어 그 의의가 자못 크다고 하겠다.

<박씨전>은 병자호란의 국난과 치욕적 굴복의 상처를 치유코자한 대표적인 복수문학이다. 특히 여주인공 박씨의 영웅적 활약은 복수문학적 의의 외에도 독립적 인격을 부여받지 못했던 당시의 유교적 인습에서 과감히 벗어나고자 하는 여성들의 의식적 각성과 감정의 표출이며, 또 구국의지의 발현이라는 점에서 남성들의 전유물이던 호국의지에 이르기까지 과감하게 도전한 소설로서 그 가치가 자못 크다. 더구나 이와 같은 강한 의식이 우리 고전 소설사상 최초로 여주인공을 등장시켰으며 이 여주인공으로 하여금 가정사라는 여성의 한계를 넘어 일대 국난의 극복에까지

87) 오영석, 『한국고전소설 연구』, (문조사, 1986), pp.86-87.

참여시켰음은 임진 · 병자 양란 후 강력하게 대두되기 시작한 여권의식이 창출해 낸 민족적 소산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학적 가치 아래 <박씨전> 교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실제 역사적 사실이 작품 속에 어떻게 허구화되고 수용되는가를 통해 당시대인들의 가치관, 삶의 방식, 삶을 바라보는 태도를 학습자에게 의미있게 인식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즉, <박씨전>에 구현된 보편적인 가치를 오늘날의 상황과 결부시켜 학습자들에게 의미있게 인식시키는 일이 중심적인 교육적 가치인 것이다.

어느 시대든지 당대인들이 그리는 그 시대의 이념적 형상이 있다. 위정자들이 제시하고 있던 이상적인 삶의 지표들은 병자호란이라는 현실적인 힘에 의해 파괴되었으며 그 결과 민중들은 더 이상 위정자들을 신뢰하지 않았다. 백성의 안위보다는 탁상공론만을 하고 있는 위정자들의 모습을 통해 더 이상 위정자들이 백성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민중들은 자신들의 바람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기에 이르는데, <박씨전>은 이러한 역사적 현실과 불합리한 여성의 사회적 대우에 대한 저항의 하나로 당대의 민중 의식을 반영한 작품이다. 이러한 것은 <박씨전>이 쓰여진 당시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추구되는 것이므로 <박씨전>과 같은 소설 작품의 교육을 통해 학습자들은 문학의 보편적 지향성을 깨닫게 되는 계기로 그 교육적 의의는 충분하다고 하겠다.

2. 문학 교육방법 분석

작가미상의 <박씨전>이 오늘날까지 전해져 오면서 우리에게 교훈적 메시지를 주는 것은, 주인공이 현실을 지혜롭게 수용하면서 '남성과 여성'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묵묵히 자신과의 싸움을 하였다는 점이다. 즉 상대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변해야 한다는 평범한 변화의 진리를 몸소 실천하여

다른 사람이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점이다. 결국 <박씨전>은 박씨라는 주인공이 자신이 처한 시대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현실사회에서 받은 온갖 악조건을 '도술'이라는 초능력을 발휘하여 극복하고 더 나아가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현실 속에서 억눌리는 여성의 입장과 그 극복의 한 방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박씨전>이 교훈적 소설로써 지속적으로 읽혀지고 있는 것은 주인공 박씨가 고난을 겪으면서도 남을 시기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려는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면서 현실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여성 특유의 지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박씨의 능력이 초인적인 면이 있지만, 그의 궁극적인 사고는 미래지향적이면서 진취적이었다는 점이다.

그녀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범상치 않은 여성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은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몸부림의 하나였으며, 궁극적으로는 남녀 간의 평등을 비롯하여 같은 여성 간에도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에 의해 불평등한 대우를 하는 사회적 미의식과 인간판단의 기준을 타파하여 이 사회의 평등을 부르짖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박씨전이 오늘날까지 면면히 이어지면서 교육적 가치를 가지는 것은 누구든지 현실에 대해서 역행하기 보다는 순응하면서 꾸준히 자신의 능력을 길러 미래에 대비한다면 훗날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교훈이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나누고 '미인과 추녀'를 구별하여, '여자와 추녀'를 사회적으로 업신여기는 것은 먼 훗날 상황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소모전일 뿐이며 서로 간에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고 서로 용서하고 인정하면서 화합하는 것이 바람직한 인생살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호적을 과감히 물리치는 후반부의 여성의 역할을 통해서 무릇 백성이면 국가에 충성하여야 할 것이며, 힘이 있다고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님을 연약한 여자의 역할로써 입증하는 극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도 교육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하겠다. <박씨전>은 여성의 역할이 대담무쌍하여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서 현대적 의미를 더해 주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유교체제에서 여성의 능력을 사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란 극복이라는 훌륭한 일을 수행할 수도 있다는 것을 환기시키고

있다. 박씨부인이 현실을 초월한 도술로써 외적을 물리치는 모습은 종래 여필종부라 하여 완전히 인간적인 개성을 죽이고 남성에게 무조건 봉사해야만 되었던 규방여성에게 이제는 남성이 하는 일에 그저 수수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국란과 같은 큰 일을 당하였을 때에는 남성과 협력하여 이를 타개하여야만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함으로서 여성들의 사회적, 정치적 진출에 선구자[88]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무도한 오랑캐의 침략으로 억눌렸던 민족적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자주 민족정신의 표출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교육적 가치 하에 과연 '문학' 교과서에서 <박씨전>의 소설적 개성과 특성을 온전하게 학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국어과의 성격에서 문학 영역 학습의 방향은 문학 작품을 스스로 찾아 읽고 토론하는 학습활동을 중시하여, 작품에 나타난 인간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문학적 상상력이 향상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89] 이는 그 동안의 문학 영역 학습이 작품의 깊이 있는 이해 능력 향상보다는 문학과 관련된 지식 전달이 주된 학습활동이었던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이와 같은 기존의 문학교육에 대한 반성은 문학 영역의 내용 체계에도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학영역의 교육 내용 체계는 '문학의 본질', '문학의 수용과 창작', '문학에 관한 태도'의 학습이 개별 문학 작품을 읽고 해석하고 평가하는 실제의 문학 활동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구조화하였다.

문학 영역의 교육 내용인 문학 지식은 문학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지식이어야 하고 그 지식은 학습자가 개별 문학작품을 읽고 해석하고 평가하는 실제의 문학 활동을 통해 습득되도록 해야 하므로 학습자가 개별 문학작품을 수용한 결과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창조적 학습활동을 강조하였다. 이는 학습자가 문학작품을 수용할 뿐만 아니라 문학 작품을 창작하는 활동이 필요하다는 인식의 반영이라 할

88) 강유정, 「여성주의 관점에서 본 <박씨전>연구-<사씨남정기>와 비교를 통해-」, (경성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p.60.

89) 교육부, 『국어과 교육과정』, 1997, pp.28-29.

수 있다. 이때 문학 창작은 수준 높은 작품의 창작만이 아니라 문학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말하기와 쓰기 문학에 관해서 자기의 의견을 표현하기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문학적 표현 활동을 의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90]

<박씨전>은 중학교 3학년 국정교과서 외에 고등학교 18종의 문학 교과서 중 총 5종의 문학교과서[91]에 수록되어 있다. 우선 <박씨전>이 교과서에서 각각 어느 대단원과 소단원에서 언급되고 수록되면서, 소설의 가치가 전달되는지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 아래의 표를 제시한다.[92]

번호	출판사	대단원	소단원	이본
1	(주)교학사	소설 문학과 이야기하기	소설의 수용과 창작	고대소장 필사본
2	(주)천재교육	소설의 수용과 창작	소설의 배경과 문체	구활자본
3	(주)블랙박스	문학의 구조와 수용원리	문학의 미적구조와 문학성	덕흥서림 구활자본
4	상문연구사	문학과 삶	역사 속의 삶과 문학	필사본
5	청문각	소설의 수용과 창작	소설의 특성과 주제	?

위의 표에서 <박씨전>은 교과서마다 대단원과 소단원이 각기 다르게 적용, 제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작품을 선정할 때 이본에 대한 정보도 다르고, 정보

90) 최광석, 「학습자 인식을 통한 고전소설 교육 방향의 모색」, 『문학과언어』23(1), (문학과 언어학회, 2001).

91) 김대행 외, 문학 (상), (주)교학사, 2004.
홍신선 외, 문학 (상), (주)천재교육, 2003.
한계전 외, 문학 (상), (주)블랙박스, 2003.
강황구 외, 문학 (하), 상문연구사.
최웅 외, 문학 (상), 청문각.

92) 심치열, 「'문학'교과서에 나타난 고전 소설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돈암어문학회 제 26차 정기 학술대회, 2005) 참고.

를 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고전소설은 텍스트가 매우 중요하다. 원 텍스트 선정을 잘못하면 작품 해석에 오류를 범하기 때문이다. <박씨전>의 경우 이본 간의 격차가 심하지 않는 편이나 고전문학의 전체를 감안한다면 교과서에서 고전문학을 수록할 때는 이본의 정보가 좀더 정확해야 할 것이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위의 문학교과서를 중심으로 동일한 작품을 대상으로 각 교과서에서 어떠한 시각으로 작품을 처리하는지 알아보았다.

1의 교과서에서는 '소설문학과 이야기하기'라는 대단원 안에 '소설의 수용과 창작'이라는 소단원에 소개되었다. 여기에는 현대소설 황석영의 <삼포가는 길>과 <박씨전>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이 단원에서 창작하기란 텍스트간의 수용 및 변용에서 비롯되는 다시쓰기가 아니라, 소설을 창작하는 것을 말한다.

2의 교과서에서는 '소설의 수용과 창작'이라는 대단원 안에 '소설의 배경과 문체'에 해당하는 소단원에 소개되었다. 여기서는 <박씨전>을 비롯하여 손창섭의 <비오는 날>과 아프리카 소설인 나딘 고디머(Nadine Godimer)의 <로데시아 발 기차>가 함께 수록되어 있다. 배경은 소설 속에 존재하는 자연이나 사회 현실 등 공간적인 요소는 물론 시간적, 사상적인 요소를 포괄한다. 여기에서 제시한 작품의 배경은 확연하게 드러나지만 소설의 문체는 단순히 고전소설은 문어체라는 형식이 언급되어 있다. <박씨전>은 이른 시기의 국문 소설이지만, 작품이 내포한 환상성에서 빚어진 문체는 다분히 설화적 성격을 띠고 있다.

3의 교과서에서는 '문학의 구조와 수용 원리'라는 대단원 안에 '문학의 미적 구조와 문학성'에 해당하는 소단원에 소개되었다. 문학작품은 작자와 독자, 작품의 내용과 형식, 소통 과정이라는 각각의 요소가 모여 미적 구조를 이룬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문학 작품의 미적 효과는 내용과 형식, 표현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단원에서는 김수영의 시 <눈>과 함께 박씨전이 수록되어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김수영의 <눈>의 분석과는 달리 <박씨전>은 작품 인용된 지문에서 미적 구조를 찾으려는 노력이 없으며, 전쟁담만이 있을 뿐이다.

4의 교과서에는 '문학과 삶'이라는 대단원 안에 '역사 속의 삶과 문학'에 실려 있

다. 여기에는 <박씨전> 외에도 윤동주의 <십자가>, 백석의 <남신의주유동박시봉방>, 엘뤼아르(Paul Eluard)의 <전시에 쓴 일곱 편의 사랑의 시>, 김수영의 <눈>, 방송극 대본인 손영목의 <천둥소리>(김탁환 원작)가 실려 있다.

5의 교과서에는 '소설의 특성과 주제'라는 대단원 안에 '소설의 특성과 주제'에 실려 있다. 여기에서는 박경리의 <토지>와 박씨전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여기서는 '박씨전은 조선 시대의 병자호란을 소재로 하여 외침을 당한 치욕을 보복하고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하려는 취지로 쓰인 군담소설이며, 토지는 구한말에서 1945년 광복까지 최 참판 댁을 중심으로 다양한 삶의 모습을 그린 대하소설이다. 이 두 작품을 감상하면서 소설의 특성을 파악하고, 허구 세계와 현실 세계의 관계를 이해해 보자'[93]라고 서술하고 있다.

교과서 분석 결과 대부분의 내용이 작품의 전반부보다는 후반부에 치중하여 병자호란이 빚어낸 군담의 의의를 학습하는데 치우쳐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작품 수록 부분도 모두 박씨가 피화당에서 호적을 물리치는 장면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박씨전>은 앞에서도 계속 언급되었듯이 박씨의 초반 행적도 매우 흥미롭게 전개된다. 또한 박씨의 도술적인 요소가 신화적 변이형 등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설화적 속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는 의의를 지닌다. 물론 병자호란이라는 치욕적인 역사적 배경도 중요하지만, 박씨가 여성이라는 점을 부각하여 당대 여성성과 함께 고전 산문의 영역내의 교섭까지 살펴본다면 학습자들에게 많은 흥미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 최광석[94]은 초 · 중 · 고등학교 생활을 마치고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의 문답을 분석한 결과 학생들은 고전소설 작품의 내적 질서나 논리보다 작품 밖의 역사적 사실이나 사회적 현실로 작품 내부를 재단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고전소설의 특수성 및 작품의 현상에 대한 설명력과 타당성 부족, 해석의 다양한 관점 부재 등의 문제를 보이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교육과정 및 교과서와 관련하여 이본 규정의 적절성, 부분 수록, 학습자의 발달 수준을 고려한 제재 선택,

93) 최웅 외, 앞의 책, p.128.

94) 최광석, 앞의 책.

도덕주의적 관점에 지나친 치우침 등에서 문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고전 소설을 현대의 시각에서 교육할 때에는 충분하고도 정확한 이해와 그 이해를 통한 사고의 신장을 연계시킬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과서에서 고전소설은 현대소설에 비해 작품의 수나 작품을 수록하는 지면 할애에서 많은 차이를 갖는다. 물론 현대소설이 고전소설에 비해 작품의 수나 분량면에서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단순히 분량만을 측정한 결과는 아니라고 본다. 고전소설의 부정적 선입견 등이 작용하여 교사나 학습자 모두 고전 소설은 현대소설에 비해 어렵고 흥미가 감소되는 영역으로 치부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만 현대소설이 현재 우리의 삶을 반영하여 공감과 교훈을 전해주듯이 고전소설 역시 창작 당시의 민중의 삶을 반영하여 그들에게 공감과 교훈을 주었던 문학작품인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고전소설의 교육에 앞서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7차 교육 과정에서는 고전문학 작품을 지도하는 이유를 다음 세 가지로 들고 있다. 첫째, 고전 문학은 우리 민족의 언어적, 문화적 유산으로서 그 자체가 알아야 할 대상이기 때문이다. 둘째, 고전 문학과 현대 문학 사이에 내용과 형식, 표현면에서 상동성이 있어 오늘날의 문학 활동에 직접, 간접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시간의 거리를 두고 대상을 접합으로써 일종의 원근법적 감각을 익힐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원근법적 감각이란 대상과의 시간적 거리를 조정하면서 다양한 관점, 방법으로 대상을 해석하는 능력을 말한다.[95]

이렇듯 고전 소설에 있어 기존의 지나친 훈고 주석의 지도에서 벗어나 당대의 삶과 정서를 이해하고 오늘날의 관점에서 작품의 내용을 재해석하여 그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문학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95) 교육부, 앞의 책, p.208.

Ⅵ. 결 론

<박씨전>은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가공의 인물 박씨의 행적을 그린 작품이다. 이 작품은 주인공인 박씨가 자신의 추모 때문에 빚어진 가정 내에서의 갈등을 신이한 능력과 변신으로 극복하고, 병자호란 시에 영웅적인 활약을 함으로써 國恥的 항복에 대응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박씨전>의 기존 연구가 부분적인 문제 규명에 치우쳐 종합적인 문학성의 규명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어 본고에서는 기존의 여러 연구를 바탕으로 <박씨전>의 종합적인 문학성의 규명을 위해 작품형성의 배경과 전개 양상, 주제 의식 등을 중심으로 그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박씨전>의 문학적 의의를 추출하고자 하였다.

첫째, <박씨전>의 형성 시기는 병자호란 이후, 그것도 병자호란 시 실재했던 역사적 인물이 다 사라진 이후의 작품이되, 여주인공을 통해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모순과 여성능력의 관념적 비하에 항거하는 고발 문학적 성격이 짙은 점, 여성에 대한 자각과 재인식을 촉구한 의식적 염원이 작품 속에 내재된 점을 보아 18세기 중엽에 형성된 작품으로 추정할 수 있다. 작가는 소설을 창작해 낼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라는 측면과 이 작품에는 서민의 생활이나 의식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점, 이 밖에도 여성으로서의 남달리 강한 自意識을 지닌 진보적 사고를 지닌 것으로 보아 유식한 양반층의 여성으로 추정해 볼 수 있었다. 또한 <박씨전>에는 여러 가지 설화가 수용되어 나타나는데, 그 중 변신설화, 여성우위설화, 천의설화를 그 대표적인 모습으로 살펴보았다.

둘째, 전개 양상면에서 <박씨전>은 여러 사건들이 가정담과 구국담으로 나뉘어 전개되고 있다. 전반부에 해당하는 가정담에서는 박씨의 추모로 인한 가족과의 갈등, 특히 이시백과의 갈등이 주가 되어 전개되고 있는데, 박씨는 신이한 능력과 변신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있다. 후반부에 해당하는 구국담에서는 병자호란을 맞

아 발생한 박씨와 호족과의 갈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박씨는 기홍대와 용골대 형제와의 싸움을 통해 이들을 통쾌하게 무찌름으로써 병자호란의 참패의 부분적인 승리를 이뤄내고 있다.

이로써 <박씨전>은 여성의 신분인 박씨가 가정적 차원과 국가적 차원 모두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주도적 위치에서 이를 해결하려 했다는 점을 통해 유기적 구성을 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주제 면에서 <박씨전>은 민족의 자긍심 회복과 근대 여성 의식을 표출하고 있다. 역사적 측면에서 병자호란 당시 역사적 인물의 등장과 함께 전쟁의 실상을 사실대로 재조명하여 당대의 무력한 정치, 사회상을 그대로 폭로하는 한편, 참패의 치욕을 정화하려는 민중의 염원에 따라 박씨의 능력을 통해 정신적인 승리를 안겨주고 있다. 또한 여성을 하나의 정물적 존재로 보는 시각이 강하던 당시 풍토에서 국사에까지 관여하여 국가적 위기를 극복한다는 내용은 여성의 역할에 큰 의미를 부여해 줌으로써 전통적 여성관과 구별되는 근대적 여성상의 부각과 자의식의 지향을 보여 준다. 하지만 박씨가 순종적인 내조자의 역할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통해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기존의 인식을 대체할 정도까지 내면화되지는 못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박씨전>이 병자호란의 패배를 극복하려는 민중의 욕구와 근대 여성 의식의 성장을 보여준 여성 주인공의 활약소설로서의 문학적 가치를 지닌 작품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문학 교육적 가치 하에 문학교과서의 검토를 통해 <박씨전>의 소설적 개성과 특성을 온전하게 학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작품 수록 시 이본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시와 균형있는 작품 내용의 인용이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본 바 <박씨전>은 병자호란의 국난과 치욕적 굴복의 상처를 치유하고자 한 문학으로 특히 여주인공 박씨의 영웅적 활약은 단지 병자호란의 상처를 극복하는데 끝나지 않고, 당시 독립적 인격을 부여받지 못했던 여성들이 유교적 인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식적 각성과 감정의 표출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박씨는 여성의 억압받는 신분과 몸인데도 불구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外侵으로 의기소침해 있었던 당시의 민중들에게 삶의 위안을 주고, 우리 민족의 우월한 자긍심을 일깨워 주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여성의 인생관을 한 단계 근대화시켰음은 물론이고,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높여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남성의 전유물로만 여겼던 구국의지의 발현이 박씨라는 여성을 통해 그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여주인공이 가정이라는 여성의 한계를 넘어 일대 국난의 극복에까지 참여한 것은 양란 후에 강력하게 대두되기 시작한 여성 의식이 창출해 낸 민족적 소산이라고 볼 수 있다.

參 考 文 獻

< 자료 >

『大東奇聞』卷 1, '鄭起龍以妻貲以馬成功'條
『林忠愍公實記』, 京城 大正二年
車相瓚, 『海東艶史』
嵩陽山人,『逸士遺事』卷 6, 梁夫人 條
세종실록, 10년 10월
진단학회,『한국사-근세후기편』
韓國史概說, 교재편찬위원회, 1984.
최웅,『주해 청구야담』卷 3, 국학자료원, 1996.

< 단행본 >

김기현 역주, 한국고전문학전집 15,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95.
김기동, 한국고대소설개론, 대창문화사, 1956.
_____, 이조시대소설론, 선명문화사, 1975.
_____, 韓國古典小說硏究, 교학연구사, 1985.
김장동, 朝鮮朝小說의 作品論考, 형설출판사, 1986.
_____, 조선조역사소설연구, 이우출판사, 1995.
김태준, 朝鮮小說史, 학예사, 1939.
김춘택, 조선고전소설사연구, 한국문학사, 1986.
김현 · 김윤식, 한국문학사, 민음사, 1973.

Rene Wellk & Austin Warren, 李京洙譯,『문학의 이론』, 문예출판사, 1987.
박성의, 韓國古代小說論과 史, 집문당, 1986.
소재영, 임병양란과 문예의식, 한국연구원, 1980.
_____, 壬丙兩亂의 충격과 문학적 대응, 지식산업사, 1982.
신기형, 韓國小說發達史, 창문사, 1960.
오영석, 한국고전소설연구, 문조사, 1986.
이경선, 삼국지연의의 비교문학적 연구, 일지사, 1976.
장덕순, 國文學通論, 신구문화사, 1985.
장효현, 한국고전소설사연구, 고려대학교출판부, 2002.
전준걸, 朝鮮朝小說의 武藝意識과 龍宮說話, 아세아문화사, 1992.
정주동, 고대소설론, 형설출판사, 1984.
주왕산, 朝鮮古代小說史, 정음사, 1950.
한영우, 조선전기 사학사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81.
한영환 · 이성교, 文學槪論, 개문사, 1982년 중판

< 논문 >

강선실, <박씨전>의 여성 의식과 교육적 가치, 중앙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경일남, 朴氏傳의 佛敎的 性格,『어문연구』14집, 충남대 어문연구회, 1985.
김기현, 박씨전 연구, 고려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64.
김은옥, <박씨전>과 <임경업전>의 비교연구, 홍익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김인순, 박씨부인전에 나타난 여성관,『錄苑』3, 이화여대 문리대학, 1961.

김장동, <금강공주젼>에 대하여,『동방학지』23 · 24호, 1980.
김대숙, 愚夫賢女설화와 박씨전,『한국설화문학연구』, 집문당, 1944.
김미란, 朴氏傳 硏究,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6.
大谷森繁, 조선후기소설독자연구, 『民族文化硏究叢書』23, 고대민족문화연구소출판부, 1985.
박무한, 박씨전 연구, 대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백명자, <박씨전> 硏究, 경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사재동, 朴氏傳의 形成過程,『장암지헌영선생고희기념논총』, 1980.
서대석, 군담소설의 출현동인 반성,『한국고전소설연구론집』1, 계명대학교출판부, 1971.
성현경, 女傑小說과 <薛仁貴傳>,『국어국문학』62 · 63合併號, 1973.
신동일, 李朝戰爭小說 朴氏傳硏究,『육사논문집』6집, 1968.
심치열, '문학'교과서에 나타난 고전 소설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돈암어문학회 제26차 정기 학술대회, 2005.
여세주, 朴氏傳의 構造와 後半部의 淵源 考察, 『영남어문학』13, 영남어문학회, 1986.
여세주, 여장군등장의 고소설연구, 영남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이윤석, <朴氏傳> 考,『여성문제연구12』, 효성여대 여성문제연구소, 1983.
이문규, <朴氏傳>의 美學的 硏究, 『우산이인섭교수회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1995.
이경우, 說話的 側面에서 본 朴氏傳,『논문집』13, 청주사범대, 1984.
이인숙, <朴氏傳>과 巫敎思想,『국제어문』2, 국제어문학연구회, 1981.
이석래, 고대소설이 미친 야담의 영향,『성곡논총』3집, 1972.
이원수, 박씨전에 나타난 여성관,『어문학』제71집, 한국어문학회, 2000.
이정원, <박씨전> 연구, 호남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이형균, 유교사회의 사회합리화와 유교윤리의 역할, 『한국사회학』34(1), 한국사

회학회, 2000.
장덕순, 병자호란을 전후한 전쟁소설, 『인문과학』3, 연세대 인문과학연구소, 1959.
정규복, 한국군담류소설의 제문제,『국어국문학』34 · 35호, 국어국문학회, 1967.
정상진, 中心人物으로 본 朴氏傳의 構造와 그 意味,『한국문학논총』 8 · 9합집, 한국문학회, 1993.
최경희, 박씨전 연구, 성신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최광석, 학습자 인식을 통한 고전소설 교육 방향의 모색,『문학과언어』23(1), 문학과 언어학회, 2001.
현길언, 박씨부인전의 주제에 대한 일고찰,『한국언어문학』20, 한국언어문학회, 1981.